



2014 Asian Games INCHEON Candidate City

2014 아시안게임은 동북아 허브도시 인천에서

시민 10명 중 6명은 2014년 아시안게임이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허브도시 인천에서
유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시민의 염원을 응원 삼아 기필코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이뤄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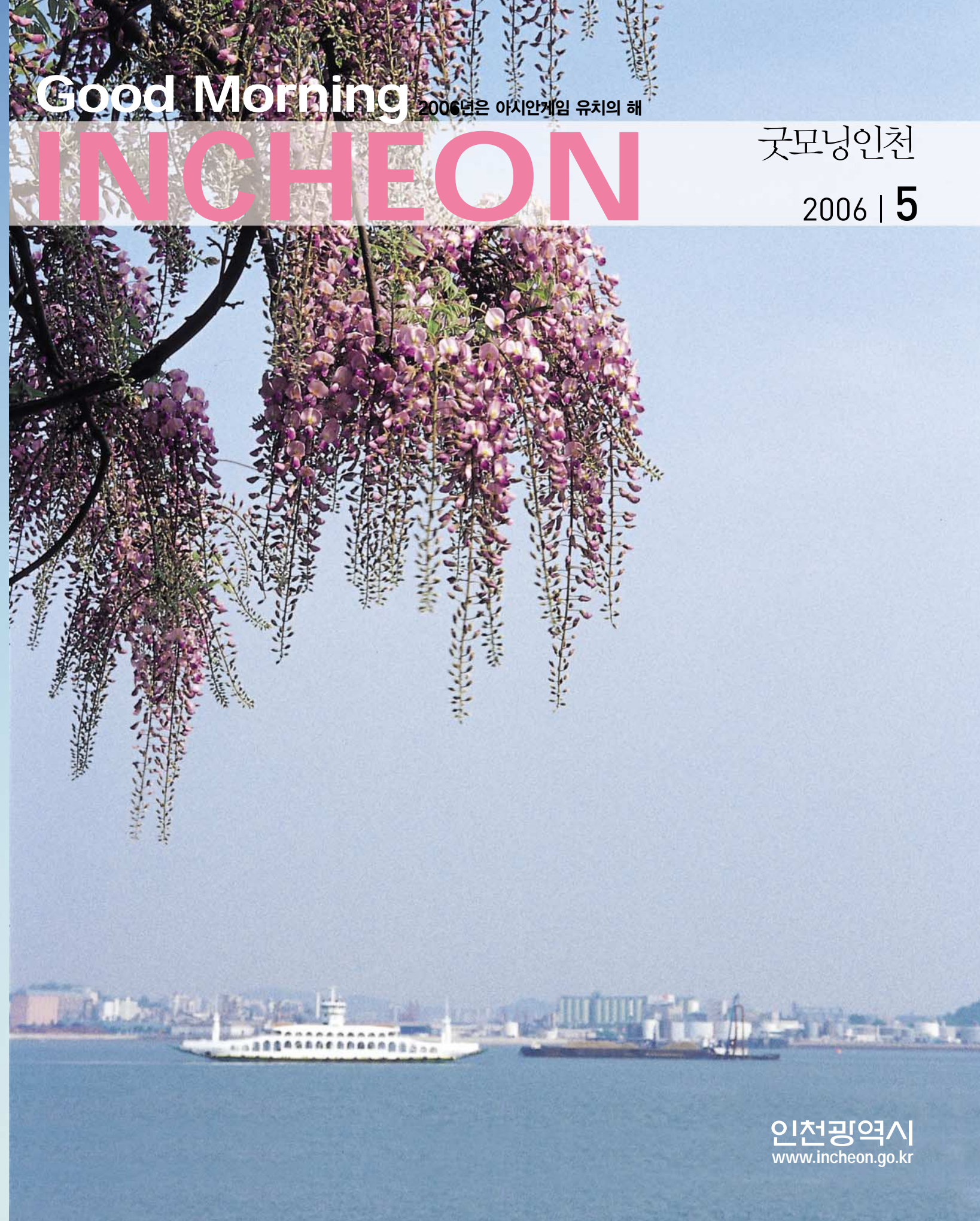
Good Morning

2006년은 아시안게임 유치의 해

INCHEON

굿모닝인천

2006 | 5



인천광역시
www.incheon.go.kr

‘국립’으로 간판 바꾸는 인천대학교



시립 인천대학교가 2009년 3월부터 국립대로 바뀐다. 우리시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4월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인천대를 오는 2009년 국립대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우리시는 국립대 전환 이후 5년간 매년 200억원씩 운영비를 보조하고, 2014년부터 10년간은 매년 200억원씩 2000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1979년 5개 학과의 공과대학으로 출발한 인천대는 1988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한 뒤 1994년 시립인천대로 다시 태어났다. 2008년까지 현재 남구 도화동에 있는 캠퍼스를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그동안 인천은 전국 3위의 도시규모에도 불구하고 국립대가 없는 교육환경이었었는데 국립화와 송도국제도시 이전을 계기로 인천대가 향토대학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6년은 아시안게임 유치의 해

굿모닝인천

2006.5 (통권 149호)



표지설명
작약도에서 바라본 전경

발행인 인천광역시
편집인 공보관 이부현
공보담당 사무관 유승준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 · 편집위원 김미희
어시스턴트 유미옥
사진 심영보 · 하정원(시 공보관실)
김성환(자유사진가) · 김정식(자유사진가)

발행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구월동 1138번지)
발행일 2006년 5월 1일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인쇄 인천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굿모닝인천〉은 <http://www.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02 창 2006 | ‘국립’으로 간판 바꾸는 인천대학교
- 04 View to Space | 하늘에서 내려다 본 ‘송도의 꿈’
- 06 인천 섬 기행 | 웅진군 소야도
- 10 가정의 달 | 가족사랑 대축제
- 12 Campus with Citizen | 대학가에서 충분히 즐기기
- 16 문화마을 순례 | 인천그린실버악단
- 18 이달의 공연 | 인천시립극단 〈여름 안개〉 외
- 20 Incheon & Arts Program | 피아니스트 백혜선 특별콘서트
- 21 시립합창단 100회 기념공연 | 창작 오라토리오뮤지컬 〈MOSES〉
- 22 파이팅 인천 |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 25 굿모닝時評 | 양코르~ 내 인생의 봄날
- 26 가정의 달 | 노인 일자리
- 30 굿인천 굿뉴스 | 우리시 전자정부 단연 ‘TOP’ 외
- 34 Youthzine | 인천시 · 앵커리지시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 35 김치 찰칵
- 36 인천음식 요리조리 | 주꾸미볶음
- 38 아이들과 함께 동네 한바퀴 | 시 수산종묘배양연구소
- 42 정보뱅크 | 어린이책 할인서점
- 44 야심만만 재테크 | 이제 남들처럼 돈 좀 벌어야하죠~
- 45 참살이 동의보감 | 당뇨
- 46 만화로 보는 옛날 옛적에 인천은 ⑤ | 효자의 마을 ‘오류’
- 48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 옛날이야기 속의 효자 신현철 씨
- 52 글마당 생각마당 | 이번달 주제 ‘청소’
- 53 Info Box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외
- 58 세 · 상 · 만 · 사 · 仁 · 川 · 萬 · 寓 | 예매당 옆 대웅전



View to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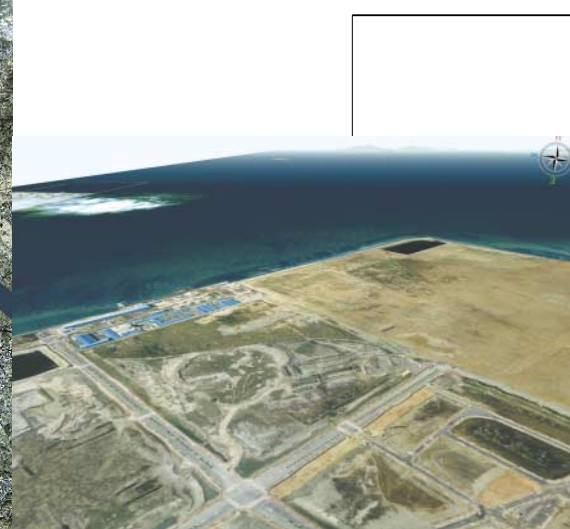
하늘에서 내려다 본 '송도의 꿈'

도시는 생물체와 같다. 사라지는 곳이 있는가 하면 새롭게 태어나는 지역이 있다. 우리 인천은 멀리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가깝게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시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땅이 팽창하며 도시의 외형이 크게 변하고 있다. 지상에서는 이런 변화의 모습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다. 하늘에서 내려다 봐야 그 실체를 실감할 수 있다.

송도부분



인천대 부지 → 입지분석한 이미지



2018년 미래의 송도 모습

인공위성에서 내려다 본 송도국제도시는 '몸짱 청년' 같은 모습이다. 잘 다듬어진 넓은 부지 곳곳에서 힘을 느낄 수 있는 시설물들이 쭉쭉 커가고 있다. IT산업의 요람 갯벌타워를 비롯해 송도테크노파크,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한 첨단 기업과 연구동 그리고 컨벤션센터와 초고층 아파트 등이 마치 신기루 같이 보인다.

우리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송도국제도시 3차원 위성영상 구축'이라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송도국제도시를 새롭게 위성 촬영해 3차원 지도를 제작함으로써 가상도시 구축,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이미지 맵 제작, 연수구 송도동에 대한 지면 입력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계획에 활용한다.

사진제공 _ 시 지적과

인천 섬 기행 | 웅진군 소야도

그 바다에 가면... 주인공이 된다

이름만큼이나 예쁜 섬 소야도에서는 누구나 '연애소설'을 쓸 수 있다. 파란 바닷물을 잉크 삼고 하얀 백사장을 종이 삼아 묵묵히 들어주는 바다와 대화하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나만의 러브스토리를 써본다.

글 • 유동현 (본지 편집장) | 사진 • 김성환 (자유사진가)

똑딱선 타는 즐거움 우아하게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폼이 이름 그대로 공주님답다. 뱃고동 한번 울리고 연안부두를 떠난 쾌속선 '프린세스' 호는 춤추듯 바닷길을 헤쳐 나간다. 한 시간 만에 소야도가 눈 앞에 들어온다. 섬의 수호신 같은 장군바위가 뱃머리를 향해 성큼 걸어 나올 태세를 취하며 무언의 '검문'을 한다.

배는 덕적도 진리 뱃터에 닿는다. 성질 급한 사람들은 해엄처 건넜다는 전설 아닌 전설이 전해져 올 정도로 소야도는 덕적도와 가깝지만 두 섬은 갯골로 엄연히 갈라 놓여져 있다. 종선(從船)으로 갈아타야 소야도에 갈 수 있다. 공주님 같은 프린세스호에 비하면 무수리 같은 똑딱선이지만 5분 동안의 종선타기는 섬 여행의 에피타이저 같은 맛을 준다.

소야도 도우나룻개에서 고개 하나를 넘으면 봄 햇살 쬔며 평화롭게 즐고 있는 마을 하나가 나온다. 80가구 180여 명이 소야도에 살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민이 이곳 선촌마을에서 산다. 구불 구불 좁은 돌담길, 색색가지 함석지붕, 빨래줄에 걸려 있는 송어새끼... 전형적인 어촌마을의 풍경이 구석구석 화석처럼 굳어져 있다. 마을 앞바다에는 갈섬, 간데섬, 물푸레섬이 공기돌처럼 놓여 있다. 물이 빠지면 서로 어깨가 닿기 때문에 징검다리 삼아 건너 갈 수 있는 무인도들이다.

마을에서 보면 멀리 용유도와 자월도의 자태가 뚜렷하다. 그 섬들과 소야도 사이로 LNG선 같은 대형 선박들이 지나간다. 옛부터 소야도 앞바다는 바다길목이었다. 여기서 섬 이름에 대한 궁금증 하나를 풀고 간다. '소야도(蘇爺島)'로 불리게 된 유래를 주민들에게 문자 바로 갑론을박이





가는 길 _ ① 연안부두에서 덕적도행 쾌속선 프린세스호를 타고 덕적도 진리선착장에서 내려 소야도로 가는 종선으로 갈아탄다. 계절이나 물때에 따라 운행시간이 수시로 바뀌므로 출발 전에 전화나 홈페이지로 확인해야 한다.

(우리고속훼리 887-2891-5 / www.urief.co.kr)

②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에서 자월도를 경유해서도 갈 수 있다. 여기서는 차를 싣고 갈 수 있다.

(대부해운 886-7813~4 / www.daebuhw.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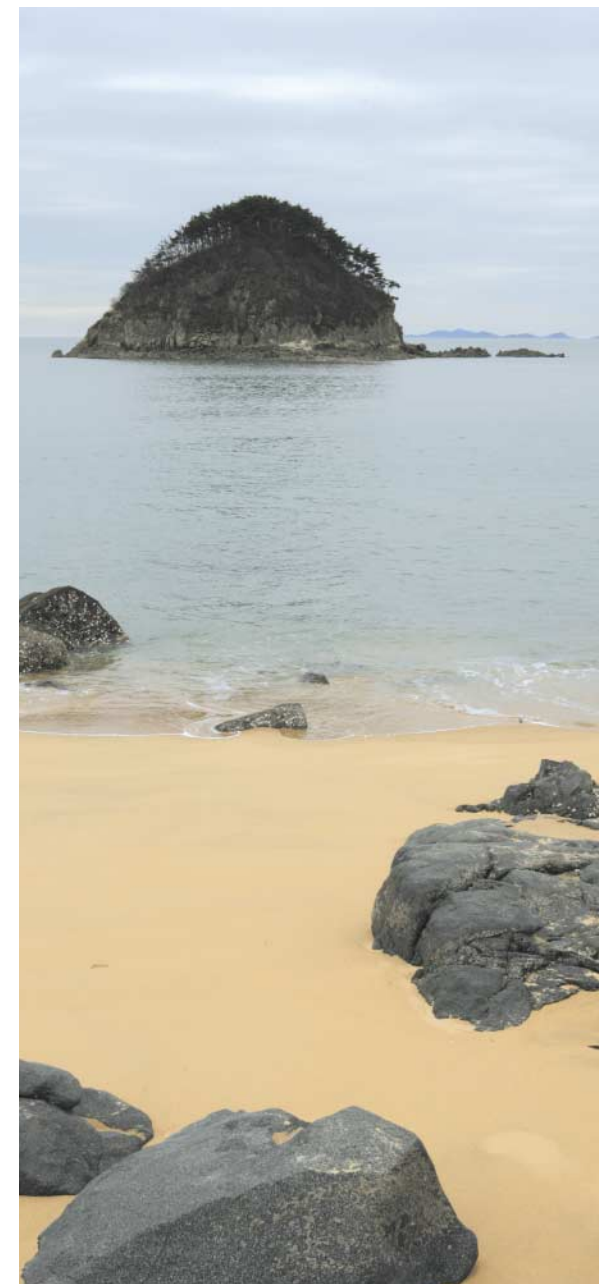
섬 정보 _ 여인숙과 식당은 없고 민박집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한다. 민박, 식사, 조개잡이, 낚시 등 전반적인 섬 안내는 최윤묵 이장(831-6969 / 016-379-6869)에게 문의하면 된다.

시작된다. “옛날 당나라 소정방이 나당연합을 결성하고 백제를 치기 위해 내려가던 중 이곳에서 정박했기 때문이다”라는 설과 “섬의 생김새가 새가 날아가는 모양이라 해서 ‘새곶섬’으로 불리다가 사야도-소야도가 됐다”는 설이 팽팽히 맞선다.

무인도 탐사하는 짜릿함 해안선 길이가 14km 정도 되는 소야도는 도처에 천연 해수욕장이 숨어 있을 만큼 아름다운 섬이다. 특히 섬 남쪽의 뱃뿌루해수욕장은 해변 좋기로 유명한 덕적면에서도 알아주는 해변이다. 서해안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은빛 고운 백사장이 700여m 가량 활처럼 휘어져 있는 해수욕장이다. 모래가 고우면 물빛도 고운 것인가. 흰 포말을 앞세우고 밀려드는 바다의 푸르름이 하얀 해변을 청색 물감으로 물들인다. 해송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해변 위로는 잔디가 깔려있고 샤워장, 식수대, 화장실 등이 깨끗하게 갖춰져 있어 파도소리를 자장가 삼으며 야영하기 제격이다.

해안 끝자락에는 또 다른 해변으로 갈 수 있는 오솔길이 열려 있다. 하늘로 쪽쪽 뻗은 소나무 숲을 10여분 정도 지나면 세상의 모든 소리가 묻혀버릴 만큼 우렁찬 파도 소리가 들리고 이어 새로운 바다가 열린다. 이름도 생소한 죽노골해수욕장이다. 영화 <연애소설> 덕분에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이 해변은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달음박질 하면 1분 안에 닿을 수 있을 만큼 아담하다. 마치 방앗간에서 갓 짙어낸 밀가루를 뿌려 놓은 듯 부드러운 모래가 사방에 깔려 있다. 바다 앞에는 뒷목이라는 작은 무인도가 떠 있다. 하루 두 번 섬끼리 손을 잡으며 물길을 터 준다. 발길이 뜸한 만큼 이 작은 섬은 자신의 살갗에 소라, 고동, 굴 등을 주렁주렁 붙여 놓는다.

일찍이 소야도는 강태공들의 단골 낚시터였다. 수석전시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해안선을 따라 각양각색의 갯바위들이 줄지어 서있다. ‘뒤장불’ ‘진대 끝’ ‘마배뿌리’ ‘북망뿌리’ 등에서 낚시대를 드리우면 우럭, 놀래미, 농어 등이 걸려든다. 소야도를 베이스 캠프 삼고 덕적도, 자월도, 이작도 앞 바다까지 원정가는 선상낚시도 할 수 있다. ☀



소야도에서 쓴 연애소설



2002년 9월에 개봉한 영화 <연애소설>은 20대 초반 세 젊은이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멜로 드라마로 차태현(지환), 이은주(경희), 손예진(수인)이 출연했다. 영화 곳곳에 소야도의 아름다운 풍치가 배어 나온다. 죽노골해수욕장에서는 세 사람이 조개껍질로 모래사장에 ‘지환 경희 수인 여행기념’ 이라고 새겨 놓고 즐겁게 뛰노는 장면이 나온다. 소야분교였던 상록휴양원(832-9961)의 모습도 필름 곳곳에 나온다. 휴양원의 작은 연못에서 지환이 경희와 수인을 위해 모닥불로 반딧불을 만들어주는 장면, 지환과 수인이 나무아래의 벤치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등이 이곳에서 촬영되었다.

5월 인천, 에버랜드 안부럽다

아이들은 신나겠지만 어른들은 쉼길 게 많아 잔인한(?)달 5월이다. 멀리 나서자니 짝 막힐 도로에 엄두가 안 나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빠진 엄마, 아빠들을 위해 우리시가 해결사로 나선다. 우리시는 제2회 가정의 달을 기념해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날 기념 가족화합 대축제’를 비롯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축제를 마련한다.

글·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어린이날 큰잔치 5월 5일(금) 10:00~17:00 문학경기장 북문광장

제84회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큰잔치가 열린다. 본 행사는 어린이날 기념식으로 열리고 식전행사로 경찰학교 의장대의 의장대시범, 인천대·인하대의 치어응원단공연, B-boy 댄스공연 등으로 흥을 돋운다. 기념식 후에는 어린이인형극, 남사당 줄타기 공연, 특공무술시범, 가족 동요·댄스 경연대회 등이 문학경기장 북문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오후 3시부터는 어린이날 기념 축하공연이 인기개그맨의 사회로 슈퍼주니어, 채연을 비롯한 신인가수 등이 출연하는 무대로 꾸며진다. 아울러 문학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인천시장배 가족 모험배 만들기 대회에는 교육청을 통해 학교별로 신청한 초등학교 이하 500가족이 유람선, 군함, 범선 만들기 대회에 도전한다. 가족에어로켓 발사대회, 가족보물찾기대회, 가족퍼즐맞추기대회 등에도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특별한 행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부대행사가 기다리니 실망할 필요없다. 도자기, 로봇전시, 투호·활쏘기·제기차기 등의 전통놀이, 소방체험, 솜사탕·달고나 만들기, 케이크·과자만들기, 종이접기, 칼라믹스, 비누방울, 어린이탐험동산, 페이스페인팅, 매직풍선, 즉석 이미지포토 등이다. 이밖에 연계행사로 5월 5일부터 7일까지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는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오즈의 마법사’ 뮤지컬 공연이 마련된다.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들은 누구나 무료입장이다.



가정의 달 행사

5월 13일(토) 13:00~21:00 인천대공원 야외음악당



5월 15일은 올해 두 번째로 맞는 가정의 날이다. 가정의 날을 맞아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유명연예인이 출연하거나 볼거리만 요란한 행사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행사로 마련된다. 수석공원에서 열리는 가족협동화 그리기대회는 가족이 힘을 모아야만 완성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대회다. 2~4 조각으로 나뉜 그림을 가족이 협동해서 그린 후 이를 합쳐서 1개의 작품으로 만들어 우열을 가린다. 또한 오후 6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영화 ‘로봇’이 상영된다.

가정의 달 기념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주 요 행 사	문 의
어린이날 큰잔치	5월 5일(금) 10:00~16:00	문학경기장(북문광장)	식전행사(문화공연), 축하공연(초청가수 공연 등)	여성정책과 440-2720
뮤지컬 무료공연	5월 5일(금)~7일(일)	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즈의 마법사’ 공연, 공연후 이벤트 행사	여성정책과 440-2720
어린이 큰잔치	5월 5일(금) 10:00~14:00	청소년수련관(야외운동장)	민속놀이 체험 한마당, 즉석사진촬영, 풍선아트 등	청소년수련관 440-6268
‘건강한 가족 생활공동체’ 가족캠프	5월 5일(금)~6일(토)	강화 바다의별(청소년수련원)	건강한 가족생활공동체 만들기 교육·체험 프로그램 가족화합 레크리에이션 등	가정청소년과 440-3940
가족과 함께하는 놀토 문화체험교실	5월 13일(토), 27일(토)	청소년회관	가족신문만들기, 요술풍선, 가훈쓰기, 도자기 공예 등	청소년회관 887-5270
가족 협동화 그리기 대회	5월 13일(토) 13:00~15:00	인천대공원(수석원)	가족 협동화 그리기, 건강가정 다짐행사	가정청소년과 440-3940
가족영화마당	5월 13일(토) 18:00~21:00	인천대공원(수석원)	‘로봇’ 상영, 가족행복지수 확인 등	가정청소년과 440-3940
성년식	5월 14일(일) 13:30~15:30	청소년수련관(야외공연장)	성년의례, 길놀이, 축하공연, 대동놀이 등	청소년수련관 440-6268
가정의 달 기념 ‘나비와 곤충전시회’	5월 25일(목)~31일(수)	청소년수련관	곤충해설가와 함께하는 곤충이야기, 표본 전시 가족벽화그리기 등	청소년수련관 440-6268

어린이 큰잔치

5월 5일(금) 10:00~14:00 청소년수련관 야외운동장



어린이날을 맞아 찾아가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행사. 청소년회관에서 마련하는 어린이 큰잔치다. 기념행사는 없지만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풍성하다. 민속놀이 체험 한마당, 길거리 매직쇼, 즉석사진 촬영,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코스프레 등의 행사가 열린다.

가족과 함께 하는 놀토 문화체험교실

5월 13일(토), 27일(토) 10:00~12:00 청소년회관



주5일 근무가 확대되면서 어린이들도 노는 토요일이 늘어났다. 어린이와 가족들이 노는 토요일에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회관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5월 13일에는 요술풍선, 가족신문만들기, 보드게임 등 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27일에는 도자기공예, 부채만들기, 예절교실(가훈쓰기) 등을 통해 우리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다.



Campus with Citizen

대학가에서 충분히 즐기길

대학캠퍼스는 더 이상 대학생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꿈과 낭만이 넘치는 젊음의 공간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한 지 오래. 대학에서 제공하는 각종 유익한 서비스를 이미 알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청바지에 가벼운 티셔츠 차림으로 대학가를 찾아보자. 잃었던 열정을 되찾고 봄의 향연을 만끽할 수도 있다.

글 • 김미희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정식 (자유사진가)

인하대 캠퍼스에서 숨은 보물 찾기

1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입으셨던 옷이래요 박물관



본관 건물에서 지하로 난 미로같은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두꺼운 유리문만큼이나 두터운 세월의 흔적이 쌓여있는 박물관에 닿을 수 있다. 구석기 유물에서부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 도구에 이르기까지 조상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관람시간 _ 오전9시~오후5시(월~금)/무료
문의 _ 860-8260, <http://site.inha.ac.kr/museum>

2 정보의 바다에 폭 빠져봅시다 정석학술정보관

학사모 형태를 띤 정석 학술정보관은 국내 대학 도서관 중 최초로 국제 품질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은 도서관이다. 지상6층, 지하2층의 총 7천5백평에 각종 최첨단 시설을 갖춘 도서관으로 시민들에게 1일 이용권(주민등록증 소지)을 무



료발급해 무한한 정보세계로 초대하고 있다. 인쇄자료 열람은 기본이고 전문 어학실사용과 DVD 등의 자료들이 소장된 멀티미디어센터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시간 _ 오전9시~오후6시(월~토) 문의 _ 860-9014

3 손 뻗으면 하늘에 닿을지도 몰라요 인하스카이라운지



하이테크센터 15층에서는 다른 건물들이 모두 난쟁이로 보인다. 시아가 탁 트여 인천앞바다와 인근의 섬까지 볼 수 있고 오후 6시경에는 낙조감상이 제격이다. 분위기는 고급스러운 호텔 레스토랑 같지만 착값은 역시나 인하대 후문에 인접한 탓인지 3000원부터다. 식사는 양식과 한식 등 다양하게 제공되어 남녀노소 메뉴에 대한 고민은 안해도 된다. 150여석이 마련돼 있어 단체예약이나 주말에 돌잔치, 피로연 등의 장소로 인기를 얻고 있다.
영업시간 _ 오전11시~오후10시(월~토) 문의 _ 861-6060, www.인천맛집.kr

4 금요일에는 영화감상하세요~ 하나울

본관 2층 대강당 '하나울'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최신작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지역 주민도 언제든지 환영이다. 4월28일부터 홀리데이, 친절한 금자씨, 킹콩, 광식이 동생 광태, 그림형제(마르바덴 숲의 전설) 등이 상영된다.
문의 _ 860-7067

5 요기서부터가 시작이래요~ 수준원점(水準原點)

학생회관 뒤 인하공업전문대학과의 경계부근에 3.46m의 붉은 벽돌로 쌓은 첨성대 모양의 표지석을 찾을 수 있다. 그 안에 수준원점이 설치돼 있으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발 몇 m'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된다. 최근 문화재로 지정됐으며 우리나라 모든 산들의 키는 '요기서부터' 잴다.

6 봉주르~

알리앙스 프랑세즈(프랑스 문화원)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 전파를 위해 전세계 138개국에 1,135개가 넘는 지부가 있고 그 중 하나가 인하대 5호관에 있다. 매달 어학강좌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트리오 콕'의 연주회, 프랑스 미술공연, 와인 행사 등의 문화행사를 열고 있다.
문의 _ 860-8034 (www.afinche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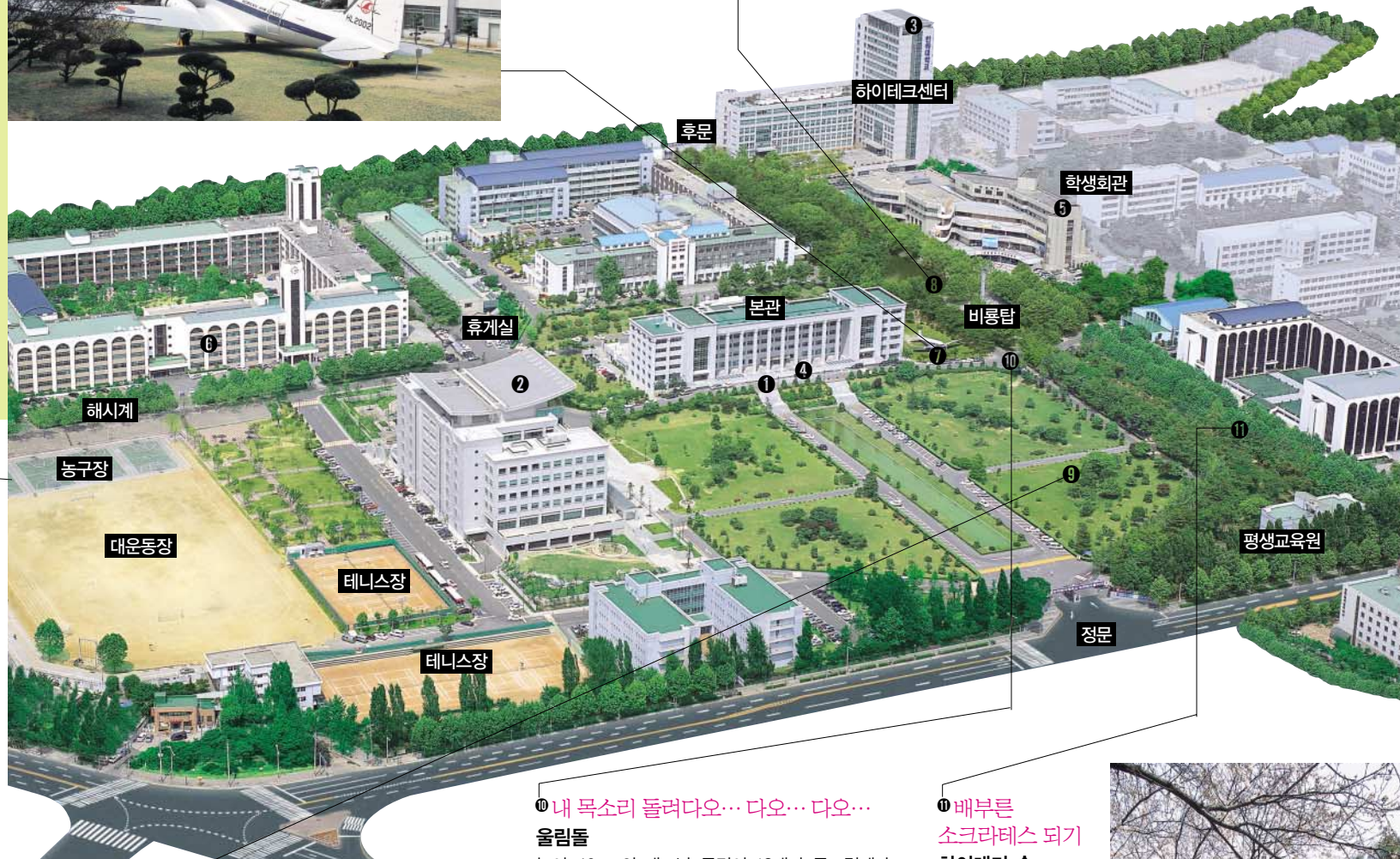
7 최초로 태평양 비행한 우남호

이승만 대통령의 아호를 딴 우남호는 1935년 당시 금속 동체로 만든 유일한 비행기였으며 우리나라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했다. 지금은 아이들의 놀이 기구처럼 이용된다.



8 용이 승천한 인경호(仁鏡湖)

전설에 따르면 여의주 두 개를 가지고 천년을 채워 승천을 꿈꾸던 탐욕스런 이무기가 있었는데 슬기롭고 마음씨 착한 소년(仁)과 소녀(鏡)가 이무기를 물리친 후 여의주를 하나씩 물고 용이 되어 승천한 곳이라는 설이 있다.



9 우리는 찰떡궁합, 미리 확인했어요~ 공합나무

의자모양의 공합나무에서 사랑을 확인해보자. 이 기이한 모양의 나무에 커풀이 앉았을 때 꼭 들어맞으면 궁합은 따로 볼 필요가 없단다. 엉덩이가 꼭 맞는 커플은 결혼까지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1년 안에 헤어진다는 설이 있다. 폭이 55cm 정도밖에 안되어 대개는 엉덩이가 넘친다.

10 내 목소리 들려다오... 다오... 다오... 울림돌

높이 40cm의 네모난 돌덩이 18개가 동그랗게 놓여있다. 중심에 서서 큰 소리로 말을 하면 그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다시 반사되어 울린다. 이런 울림현상은 착한 사람에게만 울리고 나쁜 사람에게는 울리지 않는다고 하니 착한 일 많이 하고 울림돌에 서는 게 좋겠다.



11 배부른 소크라테스 되기 하이데거 숲

학생들이 사색을 즐기고 철학을 논하는 장소로 이름 붙여졌지만 점심시간만 되면 중국 음식점 배달부의 오토바이 소리로 요란해진다. 플라타너스 그늘에 앉아 자장면을 시켜먹는 재미도 쏠쏠하다. 봄부터 가을까지 인기 만점의 장소다.



인천시민, 인천대 100% 즐기기

인천대학교는 교정과 도로의 구분도 모호하고 주차료도 없이 365일 시민에게 개방된 곳이다. 평일이든 휴일이든 관계없이 운동장과 족구장, 농구장 이용이 가능하며 단체 이용시 사전 예약을 해야한다(770-8570). 학산도서관은 1,400여석의 열람실과 36만여권의 장서 및 시청각 자료, CD-ROM검색, 해외DB검색, 원문검색 서비스, WEB저널 및 연구자료 등의 최신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과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 20일간 3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숙종 28년 인천의 교육을 담당했던 문학산 기슭에 있던 학산서원의 명맥을 '학산도서관'이란 이름으로 지켜오고 있다(770-8082). 캠퍼스 내 상가몰인 '두레터'에는 안경점, 문구점 등 9개의 매장이 들어서 있다. 미용실에서는 4,000원~5,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컷트를 할 수 있으며 매월 둘째주 일요일에는 만65세 이상의 어른들을 위해 무료 컷트봉사도 하고 있다. 휴일 없이 문을 여는 두레터 음식점에서는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식사를 할 수 있다(770-8047). 또 시민대학에는 91개 교육과정이 개설돼 있으며 2월과 8월에 수강생을 모집한다. 일부강좌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전문학사 학위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니 저렴한 교육비로 평생교육 꿈을 이뤄볼 수 있다(441-5394). 특히 8년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인천과학영재교육원에서는 우리시의 초·중등 학생을 선발해 영재들의 개인별 특성과 소질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무료로 하고 있다(770-8926).

문의 _ 770-8114, www.incheon.ac.kr

찾아가는 길 _ 경인전철 1호선 제물포 북부역 또는 도화역 3번 출구에서 도보 7분 거리



학산도서관



상아탑에 갇혀볼까? 놀이터에 빠져볼까?

경인교육대학교

올해 60주년을 맞은 경인교육대학교는 시립교향악단 초청연주회, 미술전시회 등 문화·학술행사를 열어왔으며 오는 5월 29일(오후6시)에는 교사합창단과 실내합주단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매년 5월 5일에는 어린이날 큰잔치를 열어 지역주민들과 하나가 된다. 학생들이 도우미가 되어 아이들을 인솔하고 안내한다. 열쇠고리 만들기, 얼굴 그림그리기, 악기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어린이날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도서관이용은 복잡한 검증절차 없이 지역주민들에게 자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개방하고 있다.

문의 _ 540-1114, www.ginue.ac.kr

찾아가는 길 _ 인천지하철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 하차 또는 부평역에서 1, 30, 584번 버스이용



가천의과학대학교

지난 3월, 가천의과대와 가천길대학이 통합되어 '가천의과학대학교'로 새롭게 태어났다. 연수동에 새보급자리를 마련한 이 학교는 6개 학부, 14개 학과의 의료·보건 특성화 대학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학교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인조 구장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노인회관 등을 찾아 의료봉사 활동도 펼치고 있다. 축제 기간에는 학과의 특성을 살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비만도 측정, 스케일링, 혈압측정, 물리치료 강연 등을 마련한다. 시민대학 프로그램에서도 수지침 등의 민간의료 강좌가 인기를 얻고 있다.

문의 _ 820-4000, www.gachon.ac.kr

찾아가는 길 _ 인천지하철 1호선 선학역 3번 출구 또는 신연수역 4번 출구



난, 조각작품 감상하러 경인여대 간다

인천의 유일한 여성전문대학인 경인여대 교문에 발을 들여놓으면 여대생들의 경쾌한 수다소리와 함박꽃같은 웃음소리가 싱그러운 꽃향기와 함께 교정을 가득 채운다. 조각공원을 컨셉으로 건립된 경인여대는 캠퍼스 구석구석이 30여개의 조각품들로 가득 차 사진 속 주인공이 되고픈 마음이 절로 생긴다. 경인여대는 지난 4월25일 '학생감동교육 헌장'을 선포해 수업, 취업지도, 학생복지 등에서 학생들의 만족은 물론 학부모와 동문, 지역주민 등과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캠퍼스로 만들어가고 있다. 때문에 지역주민들과도 많은 시설을 공유하고 있다. 운동장, 인터넷카페, 북카페, 도서관, 경인 스포토피아(체육공간), 식당과 매점 등을 일반인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캠퍼스 한편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있으며 간단한 운동기구가 설치된 경인동산이 있다. 국제문화교육원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강좌 프로그램으로 부동산, 골프, 수영 등을 개설하고 있다. 계양산이 가깝게 있어 등산객들이 잠시

땀을 식힐 수 있는 쉼터로 이용되고 200m정도 떨어진 계양문화회관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도 즐길 수 있다.

문의 _ 540-0114, www.kic.ac.kr

찾아가는 길 _ 인천지하철 1호선 계산역 6번 출구에서 스쿨버스 또는 마을버스(587번)이용



인터넷 카페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요~

- 인터넷카페 : 인터넷 검색과 테이블이 마련되어 담소를 나눌 수 있다.
 - 본관 3~5층(학기중 09:00~21:00 / 방학중 09:00~15:00)
- 북카페 : 다양한 잡지를 빌려볼 수 있고 비디오회를 감상할 수 있는 문화공간
 - 학생생활관 3층(학기중 09:30~16:45)
- 도서관 : 자료열람과 독서 가능
 - 학생생활관 4층(자료실 09:00~21:00 / 자유열람실 06:00~23:00)
- 경인스포츠피아 : 수영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헬스장 등이 있으며 국제문화교육원 수강자에 한해 이용은 무료다.
- 식당과 매점 : 학기중에만 운영하며 백반·분식코너와 커피와 음료 등이 마련된 후식코너가 있다.
 - 학생생활관 지하1층(식당 11:00~19:00/매점 09:00~19:00)

재능대학

재능대학은 아늑한 캠퍼스를 가지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나들이 장소로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2004년, 40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지하1층, 지상13층의 본관동 등 총 3개 건물을 신축했으며 캠퍼스 곳곳에 볼 것들이 많다. 재능공원, 작품같은 시계조형물, 원형마당, 오솔길 같은 산책로 등 조경이 잘 꾸며져 있다. 또 도서관, 열람실, 인터넷 카페, 학생식당, 문구점 등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송림 3·5동사무소 3층 주민자치센터에 '재능 멀티공부방'을 개설해 주민들과 함께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재능대 아동교육상담과 학생들이 저소득 맞벌이 가정 초등생을 대상으로 예절교육, 인성교육 등의 생활지도를 비롯해 컴퓨터, 교과목, 독서 등 다양한 교육지도

를 하고 있다.

문의 _ 890-7020, www.jnc.ac.kr

찾아가는 길 _ 경인전철 1호선 제물포 북부역에서 스쿨버스 이용 또는 13, 510번 버스이용



인천의 대학가 축제

학 교	축 제 기 간	문 의	학 교	축 제 기 간	문 의
가톨릭대학교(마리축제)	5월 4일 ~ 5월 6일	937-8111	인천대학교(대동제)	5월 22일 ~ 5월 25일	770-8042
재능대학(해암제)	5월 10일 ~ 5월 12일	890-7950		5월 5일 어린이날 축제	
경인교육대학교(미추홀)	5월 16일 ~ 5월 18일	540-1360	인천전문대학	9월 예정	760-8900
인하대학교(비룡제)	5월 15일 ~ 5월 19일	860-8451	안양대학교(갑비고차 축제)	9월 예정	930-6000
기능대학(상아축제)	5월 18일 ~ 5월 19일	510-2113	인하공업전문대학(원점대동제)	9월말 예정	870-2053
경인여자대학(청솔제)	5월 23일 ~ 5월 26일	540-0114	가천의과학대학교(문학제)	9월말 예정	820-4000

은발의 열정 무대에 꽃 피운다 인천그린실버악단

글·신은주 (인화여고 국어교사) | 사진·김정식 (자유사진가)

빔벤더스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은 이미 사라져 버린 쿠바의 BUENA VISTA SOCIAL CLUB 밴드들이 인생의 황혼기에 다시 만나 무대에서 열정을 확인하는 영화이다. 깊게 패인 주름살의 그들이 아름답게 기억되는 것은 삶의 고통과 기쁨이 지나간 뒤에도 즐거움은 여전히 남아 있는 인생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요일 오후 2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근처 인천그린실버악단 (INCHEON GREEN SILVER BAND) 연습실. 백발이 성성한 단원들이 시간에 맞춰 하나 둘 들어와 자신의 악기가 놓여있는 자리로 가서 앉자 금방 악단이 구성되었다. 색소폰, 트럼펫, 트롬본, 기타, 전자오르간, 드럼의 주인공들은 나이를 잊게 할 만큼 표정도 밝고 악기를 든 손에는 힘이 있었다. 곧이어 하모니를 이뤄 연주를 하자 모든 악기 소리는 천장을 뚫고 나갈 만큼 힘과 열정이 넘쳤다.

젊은 날, 인기가 있던 시절에는 미8군, 나이트클럽, 공군악대, 방송국 무대를 가득 채웠던 열정들을 은퇴 후 다른 장

소에서 다시 발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감회는 좀 남달랐다. 그들이 연주하는 곡에서는 삶에 대한 애정이 진하게 묻어나고 표정에서는 제 2의 전성기를 시작하고 있는 생기가 배어난다.

악단에서 전자오르간을 연주하며 총무를 맡은 박복동씨가 인천그린실버악단의 탄생 배경과 창설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려주었다.

현재 그린실버악단 단장이면서 악단 창설자인 김점도씨는 고향인 인천을 소재로 '내 고향 인천향', '내 사랑 인천항구', '인천아이들' 등 수많은 곡을 작곡했을 뿐 아니라 인천 시민 애창곡, 유성기 음반총람 자료집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다. 인천에 대한 남다른 사랑에 인천시는 인천문화상을 수여해서 보답을 했다. 그는 또한 우리 가요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현재 나와 있는 노래책과 노래방 등에서 잘못된 작사자, 작곡자, 가사 등을 꼼꼼히 바로 잡아 대중가요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현재는 KBS 가요무대의 자문위

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여가선용과 삶의 활기를 건전한 음악으로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2002년 12월 26일에 수봉공원 문화회관에서 그린실버악단을 창단했다.

악단 16명, 남자가수 2명, 여자가수 2명, 주부가요 합창단 20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된 단원들은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연령층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레퍼토리로 한층 차원 높은 생(生)음악을 연주하고, 또 대중가요, 팝송, 가곡, 민요 등을 다양하게 편곡해서 크고 작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그린실버악단으로 성장을 했다.

백발의 '청춘'들이 펼치는 음악의 향연은 그들에게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주었다. 특히 그늘진 곳인 구치소, 소외계층인 장애인과 노인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선사하면서 제 2의 인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



그린실버에 담긴 의미는 단원들의 나이가 50부터 73세라서 아직 '노인'이라 부르기에는 젊은 사람들도 있고 또 나이를 넘어서서 젊은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작년에 전문예술단체로 지정이 되어, 앞으로는 인천시에서 문화예술 진흥기금 지원도 받고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단원들은 든든한 힘을 얻었다. 박복동씨는 노년층을 위한 전문악단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시립' 그린실버악단으로 등록되어 안정적인 상황에서 연주하는 길이라는 바람을 비치면서 그런 날이 곧 올거라고 믿고 있다.

악단 단원들은 연주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악기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개인 레슨도 하면서 자신들의 재능을 발휘해 가르침의 즐거움도 느끼고 있었다.

밖으로 나오니 4월의 봄빛은 따스하고 지하 연습실은 은발의 열정으로 뜨거웠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장밋빛 뺨, 붉은 입술, 유연한 지체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넉넉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불현듯 사무엘 올만의 '청춘'이 오랜만에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와 닿았다. ☀

(인천그린실버악단 426-0422)

막상막下

이 탈의 공연

인천시립극단 **여름 인개**



〈여름 인개〉(홍창수 극본, 이종훈 연출)는 실버타운을 배경으로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의 다양한 사랑과 욕망을 다룬 작품이다. 주로 노인들의 삶이 무대에 드러나지만 단순히 그들의 애환이나 젊은 세대와의 단절을 그리지 않고, 인간 의 보편적인 욕망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통해 삶과 죽음을 환기시키는 작품이다. 욕망과 좌절, 낙관적 전망과 비관적 허무, 늙음과 젊음, 웃음과 울음, 놀이의 활력과 정적인 무 기력, 신 자와 죽은 자 등 인생의 대비되는 요소들이 공존하면서 조화를 이룬다.

일시 _ 5월 19일(금) ~ 28일(일)

평일 오후 7시30분 / 토 · 일요일 오후4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10,000원 / 5,000원

문의 _ 인천시립극단 (438-7775)

어버이날 기념 남진 콘서트

120분간 펼쳐지는 남진 콘서트는 가슴 아픈게, 우수, 미워도 다시 한번, 눈물로 끝난 사랑, 목화 아가씨 등 수 많은 히트 곡과 추억의 율드팔, 영화 OST 등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20대 청년처럼 댄서들과 함께 현란한(?) 춤을, 때로는 애절하게 가슴을 저미는 목소리로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그 때 그 시절의 노래를 관객과 함께 부르며 흥겨움을 주는 공연이 될 것이다.

일시 _ 5월 7일(일) 오후 3시, 7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1층(R석) 55,000원 / 2층(S석) 44,000원

문의 _ N엔터테인먼트 (1588-2341 / 818-5665)

인천시립무용단

아시아 자매도시 예술단 합동 교류전



인천시립무용단은 창단 25주년 특별기획공연으로 2014년 아시아간담회 유치를 위해 세계에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아름다운 전통예술과 특색있는 아시아의 춤 문화를 한 자리에서 선보인다. 한류열풍 속에 한국을 대표하는 인천시립무용단의 춤과 아시아의 살아있는 춤 문화유산을 한자리에 모아 상호간의 문화 교류를 통해 우의를 다진다. 인천시의 자매도시인 중국의 천진시와 베트남의 하이퐁시 무용단, 그리고 하노이시 무용단을 초청한다.

일시 _ 5월 18일(목) ~ 19일(금) 오후 7시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전석 초대

문의 _ 인천시립무용단 (420-2788)

※산정방법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art.incheon.go.kr)와 인천시립무용단 홈페이지(dance.inchonart.org)를 통해 5월8일부터 12일까지 1인당 2매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접수

뮤직 마리오네프 Marionette Music Show

아프리카 민속공연, 짐시들의 합창, 빼에로 모기, 아라비안 나이트, 아기 낙타와 나비 등 작은 프로그램들을 옴니버스식으로 구성해 목각줄인형, 손인형, 막대인형 등 다양한 인형들의 묘기를 보여준다. 스토리 중심이 아니라 뮤직 댄스 페스티벌 형식으로 진행되는 가족 뮤직 인형극이다.

일시 _ 5월 2일(화) 오전 10시, 오후 2시

장소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제홀

티켓 _ 전석 6,000원

문의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부
(760-3466~7 / www.iecs.go.kr)

인천사랑의 기부합창단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음악을 좋아하며 찬양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랑의 부부들이 아름다운 화음을 통해 부부사랑과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준다. 인천사랑의 기부합창단은 제2회 정기연주회로 미시곡, 애정곡, 성가곡, 부부울동과 함께하는 노래 등 16곡의 합창과 독창 그리고 연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한다.

일시 _ 5월 9일(화) 오후 7시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5,000원

문의 _ 인천사랑의 기부합창단 (763-0663)

어린이 난타 오즈의 마법사

난타와 오즈의 마법사와의 만남. 송승환 제작사단이 만든 어린이 난타 〈오즈의 마법사〉는 마치 오즈의 세계로 직접 와있는 듯한 환상적인 느낌과 난타의 신명나는 리듬, 그리고 탭 댄스 등의 즐거운 볼거리로 가득 차 있다.

일시 _ 5월 27일(토), 28일(일) 오후 1시, 3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1층(R석) 30,000원 / 2층(S석) 25,000원

문의 _ 창라이프 (1566-6551)

월	화	수	목	금	토	일
5월1	2 한국기독교인합창단 제40회 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5천원 한국기독교인합창단(501-6770) 뮤직 마리오네프 오전 10시, 오후 2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제홀 6천원 / 760-3466~7	10 인천가톨릭청소년오케스트라 (작은음악회)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초대 인천가톨릭청소년오케스트라 819-2619	4 인천시립합창단 제100회 정기연주회 〈모세〉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1만원, 7천원, 5천원 시립합창단(420-2784) 오즈의 어린이날 축하공연 오즈의 마법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4시 / 초대 피아세성(572-4281)	5 제84회 어린이날 축하공연 오즈의 마법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4시 초대 / 피아세성(572-4281) 금요예술무대 〈오정현과 함께하는 마술이야기〉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외공연장 오후 4시 / 초대 피아세성(572-4281)	6 제84회 어린이날 축하공연 오즈의 마법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초대 / 피아세성(572-4281) 시립무용단 토요상설무대 오후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외공연장 / 무료 시립무용단(420-2788) 학생무용경연대회 우수작 공연 오후 4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제홀 / 무료 사립국무용협회 인천지회 865-5474	7 어버이날기념(삼진문서트) 오후 3시 /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5천5천원, 4천7천원 N엔터테인먼트 / 1588-2341 부활문화제 정기공연 오후 3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초대 / 시 문화예술과(440-4032) 청소녀를 위한 5월무용제 오후 6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외공연장 인천인무가협회(760-8869)
15	16	17	18 인천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아시아자매 도시 합동교류전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초대 시립무용단(420-2788)	19 제43회 정기공연 〈여름인개〉(~28) 평일 오후 7시30분 주말 오후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1만원, 5천원 시립극단(420-2790) 금요예술무대 시민과 함께하는 피아노 포트레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외공연장 무료 / 420-2717	20 인천시립교향악단 〈청소녀문화제홀마임〉 오전 10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2천원 / 420-2715 시립무용단 토요상설무대 오후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외공연장 무료 / 420-2788	21
22	23 제15회 남구여성합창단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무료 남구청(880-4296) 제2회 광현수 독창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제홀 오후 7시 무료 인천여지공립고등학교(525-1604)	24 제14회 국악의 밤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무료 세일문화재단(885-3611)	25 인천청소년교향악단 〈애니메이션 콘서트〉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1만원, 7천원, 5천원 / 438-6040 인천교사 현안상설문화회 제6회 정기연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제홀 오후 7시 / 무료 치문화 011-9700-2638	26 금요예술무대 대중가수 초청 가요무대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외공연장 무료 420-2717	27 어린이난타(오즈의마법사) 오후 1시, 3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3만, 2만5천 / 창라이프(1566-6551) 제7회인형차문화전 오전 9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외공연장 사립국립레버존홀(468-3595) 하모니카 시장 제1회 정기연주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이든홀 오후 7시 / 무료 하모니카 시장 017-264-2114	28 제20회 새박 춤 공연 오후 3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외공연장 사립국무용협회인천지회(865-5474) 어린이난타(오즈의마법사) 오후 1시, 3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3만, 2만5천 창라이프(1566-6551)
	30 제14회 춤마당·흥마당 (동화속으로)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1만원, 5천원 시립무용단(420-2788) 청소녀 가장과 함께하는 (갈라문서트)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제홀 오후 7시 / 1만원, 3천원 세종이카데미 765-2658	31 제14회 춤마당·흥마당 (동화속으로)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1만원, 5천원 시립무용단(420-2788) 인천예고 무용과 정기발표회 오후7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 공연장 / 무료 / 인천예술고등학교 (433-3142)	6.1	2 금요예술무대 퓨전드림쇼 (Hammer)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외공연장 무료 420-2717	3	4

※ 공연 및 전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세요.



Incheon & Arts Program

피아니스트 백혜선 특별콘서트 엄마하고 나하고

일시 _ 5월 13일(토) 오후 7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3만원 / S석 2만원(초등학생 이하 자녀 동반시 R석 2만원, S석 1만원)
문의 _ 420-2020~2 / www.incheonarts.com

1994년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피아노부문에서 1위 없는 3위에 입상함으로써 세계 음악계에서 주목을 받았던 백혜선. 그는 이미 1991년 세계 3대 음악 콩쿠르 중 하나인 쾨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에서 은상을 수상했고 1989년 미국 윌리엄 카펠국제콩쿠르 1위, 헬렌하트 국제 콩쿠르 2위, 1990년 영국 리즈 국제콩쿠르에 입상하는 등 세계 음악계가 그를 주목했다.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입상 직후 서울대 사상 최연소 교수로 임명되었으나 2005년 서울대 교수직을 사임한 백혜선은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세계를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의 콘서트장에서는 전공인들은 물론 어김없이 엄마와 손을 잡고 함께 온 어린이들이 많이 만날 수 있다. 피아노라는 악기는 모든 악기의 중심이 되는 악기며 음악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친근한 악기지만 피아노 치기는 어린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벽찬 공부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음악이 방정식을 푸는 공부가 아닌 자연스런 일상의 언어처럼 받아들여지길 바라며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된 백혜선이 어린이들을 위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음악회를 꾸민다.

프로그램의 전반부에서는 평소 음악회에서는 접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피아노를 처음 배울 때 꼭 만나게 되는 소나티네부터 피아노를 다룰 줄 안다면 누구나 한번씩은 꼭 연주한다는 명곡들, 피아노에 대한 재능을 살려 음악학교 입시나 콩쿠르를 나갈 때 꼭 준비하는 곡을 들려준다. 후반부에는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의 많은 어린이들이 즐기는 세계적인 동화 <아기코끼리 바바 이야기>를 프랑스의 작곡가 폴랑이 피아노로 표현한 음악동화를 백혜선이 피아노로 연주하며 그의 육성으로 직접 동화구연을 하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곡마다 간단한 해설도 함께 할 예정이며 어린 음악도와의 피아노 듀오 연주와 실내악 연주도 하게 된다.☀

이달의 展

권이조 사진전 <갯벌의 여운>



사진가 권이조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느님의 모상대로 소리없이 왔다가 흔적만 남기고 가는 갯벌의 수로를 보면서 자연의 신비와 삶의 이치를 깨달으며 지난 1년간 강화갯벌을 소재로 작업을 해왔다. 5월6일부터 11일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에서 그의 작품 35점이 전시된다.

추억의 교실전
4월19일~5월31일 (526-9301) 후평도서관

미술한마당축제
4월28일~5월4일 (867-2196)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전시실

눈길전
5월5일~11일 (010-7550-9979)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전시실

무형문화재작품전시회
5월5일~11일 (440-4032)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전시실

권이조의 <갯벌의 여운>
5월6일~11일 (016-9774-5767)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중앙전시실

인천가톨릭사진가회 사진전 <강화도-역사의 향기>
5월6일~11일 (011-779-9771)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미추홀전시실

강광 회고전
5월12일~18일 (423-0442)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중앙전시실

무형문화재단창장 정설길 개인전
5월12일~18일 (011-316-4150)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전시실

The 1st 나도 <도예가>전
5월13일~18일 (868-1326)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미추홀전시실

석영회개인전
5월19일~25일 (511-2580)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미추홀전시실

제18회 인천시에대전 및 초대 추천작가전
5월20일~25일 (772-9980)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중앙전시실

제8회 예우회전
5월20일~25일 (011-794-7306)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전시실

제5회 인천한국화대전
5월26일~31일 (867-2196)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전시실

재능사진연구회8인전
5월26일~31일 (777-6879)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중앙전시실

제3회 바셀 아카데미전
5월26일~31일 (019-212-3601)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미추홀전시실

제5회 송국학생미술전시회
5월27일~31일 (867-8331~2)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전시실

인천시립합창단 100회 기념공연

창작 오라토리오뮤지컬 MOSES

일시 _ 5월 4일(목) 오후 7시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1만원, 7천원 **문의** _ 420-2784



인천시립합창단이 계절의 여왕 5월에 뜻 깊은 100번째 무대를 마련한다. 1995년 12월 윤학원 교수에 의해 재창단 된 인천시립합창단은 그동안 마이클 부루어, 낸시 텔퍼, 폴 살라무노비치, 도날드 누엔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을 객원지휘자로 초빙함으로써 세계정상급의 합창단임을 인정받았다.

1997년 세계합창연합회(IFCM) 주최 창립 15주년 기념 세계합창제 초청연주를 비롯해 1999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세계 합창 심포지움 초청 연주, 2002년 합창올림픽의 갈라콘서트, 2004년 대만 세계합창제 초청연주 등 세계합창계의 주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미국의 LA, 워싱턴, 필라델피아, 뉴욕 4개 도시 순회 연주 중 뉴욕 카네기홀 공연은 청중의 가슴을 적시는 연주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인천시립합창단은 르네상스 음악에서 현대음악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의 폭넓은 연주곡과 움직임이 있는 독창적인 무대로 청중과 더불어 함께하는 합창단이다. 무엇보다 전임 작곡가를 두어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곡을 개발하여 연주함으로써 끊임없이 세계 합창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인천시립합창단은 100회 연주를 기념하기 위해 전임 작곡가 우효원이 창작한 오라토리오뮤지컬 'MOSES(모세)'를 무대에 올린다. 합창음악이 배경적 코러스가 아닌 중심음악이며 솔로와 2중창이 골고루 섞이는 등 극적인 부분이 강조되면서 연출되었다. 연출 또한 기존 뮤지컬과 오페라와는 달리 심플하면서도 합창음악을 중심으로 극의 전개를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국적인 정서와 Jazzy한 리듬들이 복합적으로 녹아들으로써 새로운 한국 합창음악의 감동을 전할 것이다.☀

차 한 잔 | 윤학원 (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100회 정기공연을 앞두고 막바지 무대 점검과 <모세>에 대한 음악적 완성도를 위해 하루하루 분주하게 보내는 윤학원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잠시 만났다.

- 100회 정기공연에 대한 의미와 'MOSES(모세)'를 주제로 선택한 동기는 무엇인가

그동안의 많은 연주 성과와 감동을 시민들과 함께 되돌아보며 미래 합창음악의 청사진을 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무대를 마련했다. 창작 오라토리오뮤지컬 <MOSES(모세)>는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비종교인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스토리로 전개된다. 너무나 약하고 인간적인 모세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과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감동적 이야기가 음악과 다양한 연출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

- 수많은 공연중에서 어떤 무대가 가장 기억에 남는가

매 공연마다 새로운 시도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모든 무대가 다 소중하다. 굳이 꼽으려면 1997년에 세계합창연합회(IFCM)가 주최하는 세계합창제에 초청되어 3000명의 각국 지휘자들이 모인 연주회에서 세 번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세계 합창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준 공연이다.

- 앞으로 합창단의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시립합창단 소속 전임 작곡가를 통해 새로운 합창음악의 모델을 제시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며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현대적이면서도 한국적인 새 합창음악을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무대에 한국합창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할 것이다.





국제대회 경험 쌓고 아시안게임 유치, Go~ Go!

지난 2002년 문학벌을 뜨겁게 달궜던 붉은 악마의 함성을 기억하는가? 아니, 굳이 200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지 않더라도 우리시는 지난해 9월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깔끔하게 치러내 남북이 하나 되고 통일 한국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처럼 우리시는 여러 차례 세계적인 스포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춰가고 있다. 올해도 우리시에서는 인천국제마라톤대회를 비롯해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목의 국제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렇듯 국제스포츠대회의 경험을 차곡차곡 축적해 2014년 아시안게임을 멋지게 치러낼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겠다는 계획이다.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자유사진가)



흥겨운 축제 한마당 인천국제마라톤대회

지난 3월 26일 문학벌이 뜨거운 함성으로 달아올랐다. 지난해 국제육상연맹 공인 대회로 승격된 '제6회 인천국제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과 시민들의 함성이었다. 국제대회 승격 2년차로 열린 인천국제마라톤대회에는 국제도시로 부상하는 인천의 위상에 걸맞게 1만 3천여 명의 선수와 가족, 자원봉사자 등 7만여 명이 참여해 단순한 스포츠행사가 아니라 시민들의 축제로 흥

겨움을 더했다.

풀코스, 하프, 10km, 5km 부문으로 나뉘어 열린 이번 대회에는 국제대회라는 명성에 걸맞게 케냐, 이디오피아, 에콰도르 등 10개국에서 21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했으며 국내 엘리트 선수 69명이 참가했다.

선수들은 인천문학월드컵경기장, 남동공단, LNG, 해안도로, 송도국제도시 연수지구 해안도로 등에서 시원한 바닷바람과 향긋한 봄 내음, 시민들의 열띤 응원을 받으며 힘찬 레이스를 펼쳤다. 국제 공인대회로 열린 하프코스에서는 2004년 보스턴마라톤에서 1위를 차지한 케냐의 루크메토 선수가 1시간 2분 12초의 기록으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우승 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프코스에 도전해 올해로 다섯 번째 인천마라톤대회에 참가한다는 이현재 씨(36·부평구 산곡동)는 "인천마라톤대회는 온 가족이 함께 참가할 수 있어 즐거운 잔치같은 분위기"라며 "오늘처럼 뜨거운 시민들의 열기라면 아시안게임 유치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www.incheonmarathon.co.kr)



스릴만점 인천월드인라인컵2006

모험과 스피드를 즐기는 세계의 젊은이들이 인천에 온다. 세계 인라인 토크러들이 참가하는 '인천 인라인 올림픽아드 & 인천월드인라인컵 2006' 대회다.

(사)인천국제인라인마라톤조직위원회와 국제롤러연맹이 주최하고 우리시와 문화관광부가 후원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인라인 올림픽아드는 오는 6월 4일 오전 9시 인천국제공항공사 하늘광장에서 국제공인대회로 열린다. 인천국제공항을 배경으로 영종도 잠진선착장 남측도로의 아름다운 해안가를 달리게 될 이번 대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라인 대회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등 21개국에서 세계 토크러 등 외국선수 100여명과 국내 프로팀 선수들, 꺾채이 선수 등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대회는 인천월드인라인컵(42km, 21km, 10km), 슬라럼, 인라인페스티벌 등으로 치러진다.

한편 대회 전날에는 3천여명이 참가하는 '독일 월드컵 4강 기원 야간 해안로드 페스티벌 & 전야제'가 열려 시민들은 축제 한마당에 함께 할 수 있을 듯 하다. (www.iiio.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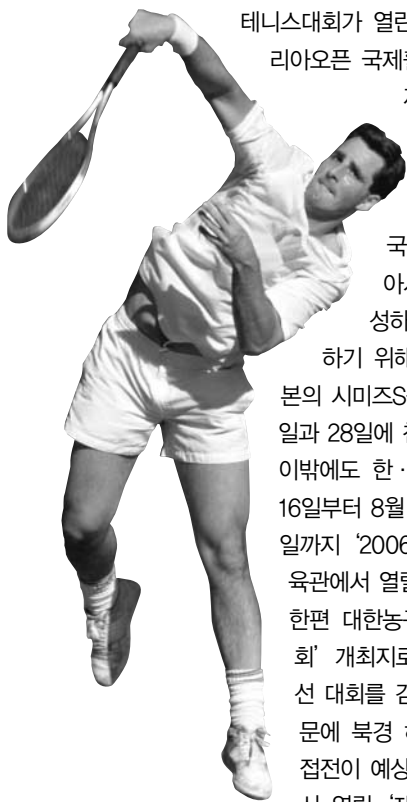


우리시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이밖에도... 테니스에서 농구까지



시립테니스장은 4월에 이어 5월, 6월에도 선수들의 열기로 가득 찰 예정이다.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2006 아시아주니어 시리즈 테니스대회가 열린데 이어 5월 23일부터 28일까지는 '2006 인천코리아오픈 국제휠체어테니스선수권대회'가 열린다. 이어 '2006 국제여자챌린저대회'가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전 세계 20여개 국에서 1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린다.

한편 시민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FC는 동북아 4개국 친선축구대회를 문학경기장에서 개최한다. 2014년 아시안게임 인천유치를 위해 남북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북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는 경기다. 우리나라의 인천유나이티드, 일본의 시미즈S-펄스(J리그), 홍콩과 북한의 팀들이 참가해 5월 25일과 28일에 친선경기를 통해 우의를 다진다.

이밖에도 한·일청소년스포츠포교류대회가 대한체육회 주최로 8월 16일부터 8월 24일까지 우리시 일원에서 열리고 11월 2일부터 11일까지 '2006 세계 주니어 배드민턴대회'가 새로 오픈할 삼산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대한농구협회는 '2007년 제22회 아시아여자농구선수권대회' 개최지로 인천을 결정했다. 2008년 북경 하계올림픽대회 예선 대회를 겸하는데 아시아 지역에 1개의 출전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북경 하계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한 아시아 각국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2007년 6월 8일부터 15일까지 삼산체육관에서 열릴 '제22회 아시아여자농구선수권대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북한 등 13개 나라가 출전해 1부, 2부로 나뉘어 치러질 예정이다.

성공,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

우리시는 이와 같은 국제대회 경험을 살려 아시안게임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시정목표를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의 해'로 정하고 인천시민들과 유치위원회의 역량을 모으고 있다.

2014년에 아시안게임을 치를 도시는 올해 아시안게임이 개막되는 12월 3일 카타르 도하에서 아시아 45개국의 올림픽위원이 인천과 뉴델리 중 하나를 선택해 투표로 결정된다. 우리시는 지난 3월 31일~4월 8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올림픽위원회(ANOC) 총회에서 인천을 세일즈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위원들이 참석해 대규모 행사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 우리시는 아시안게임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리고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우리시는 평양과의 공동개최라는 히든카드를 준비해 오는 12월 투표 직전에 이를 부각시킬 계획이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아시안게임은 5조2천억원이라는 생산유발효과와 2조1천억원의 부가 가치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구나 우리 인천은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에서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다. 따라서 아시안게임 유치에 성공하게 되면 도시 인프라를 정비하고 확충해 명실 공히 동북아시아의 대표 국제도시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앙코르~
내 인생의 봄날



글·강개순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장)

봄비에 함초롬히 피어난 꽃들을 본다. 교정에는 내가 몸을 담고 있는 동산육영회의 '교학'인 백목련이 곳곳에서 그 순백의 자태를 뽐내기에 한창이다. 손길 닿지 않는 곳에 겨우내 추레하게 늘어져 있던 개나리도 노오랑게 단장하고 눈길을 잡아둔다. 그 옆에 다정한 동무마냥 연보랏빛 철쭉도 나란히 서있다. 나이가 지긋한 벚나무는 그 화려한 성장을 뽐내기 위해 치장이 한창이다. 어디 그뿐인가? 스산한 바람에 한생을 마감하는 듯이 애저로이 보였던 은행나무와 플라타너스의 가지마다 양중맞은 파이란 잎이 손을 내밀고 있다. '아! 이렇게 봄날의 자연은 생기가 있고 아름답구나' 절로 감탄이 나온다. 싱그러운 봄벌아래에서 화사한 꽃들을 보며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비록 '할머니'라 불리는 나이일망정, 소녀시절의 마음이 되살아나는 듯하다.

나는 2년 전에 갑작스럽게 남편의 죽음을 접하고 한동안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기도 했다. 남편은 평소 술과 담배를 좋아하긴 했어도 병치레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져 깨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남편의 뒤를 이어 맡은 학교재단의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4남매 자식들 각각의 가정사로 마음 아픈 적도 많았다. 그러는 동안에 작년 3월에는 인천재향군인회 여성회장직을 맡게 되었고, 금년 2월초 인천여성협의회 회장에 당선되는 과분한 영광을 안게 되었다.

사회생활을 하다가도 환갑이 되는 나이면 응당 가정에 돌아와 주부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상례로 여겨지는데 나의 경우는 나이가 들어서 사회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다. 어쩌면 노년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과분한 명예를 누리며, 봄비 그친 하늘과 화사한 꽃들에 심취하여 마냥 행복감을 누리며 문득 '자연 예찬'을 해본다. 뿌연게 온 하늘을 뒤덮던 황사를 인공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자연의 봄비만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 육체나 마음에 몹쓸병이 있을때 그 어떤 명약보다도 해맑은 봄 하늘과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위안이 되지 않을까? 나이트 이에게는 양중맞은 새싹이 생기를 심어 주지 않는가? 세상이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문득 '자연'에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여 봄직하다. 산을 오르고 강이나 바다를 찾지 않더라도 도심속 어딘

가에도 생기있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 있다. 일상의 번잡함과 번민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삶의 활력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때로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꿈'과 '열정'을 찾게 해주지는 않을까? 늘 집안에만 '갇혀' 지내는 할머니 친구들에게 정말 '자연스럽게' '자연'에서 행복을 찾아보기를 권하고 싶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뿐 아니라 옷차림 하나에도 더욱 신경이 쓰여진다. 되도록 젊어보이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젊다는 것'은 산술적인 나이나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닌 듯하다. 젊게 사는 비결은 무엇보다 '마음'에 있을 것이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세속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사소할망정 꽃한송이, 들꽃 한포기를 바라보면 빙그레 웃는 여유로움도 행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신록을 바라다보면 내가 살아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 세어 무엇하리. 나는 지금 오월 속에 있다. 어느덧 질어지고 말 것이다. 머문 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유월이 되면 '원숙한 여인'같이 녹음이 우거지리라. 그리고 태양은 정열을 퍼붓기 시작할 것이다. 밝고 맑은 순결한 오월은 지금가고 있다.

피천득님의 수필 '오월' 중의 한 구절이다. 이분의 글을 읽으면 몸도 영혼도 맑아지는 느낌이다. 후회없는 영혼이 어디 있겠는가. 다시 태어나도 지금처럼 살고 싶다는 선생님의 말씀처럼 '오월' 지금 이 순간순간에 의미를 두고 소박하게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

일하는 어르신, 황혼이 꽃보다 아름다워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어 어느새 뒷방 늙은이로 전락해 버리고 쓸쓸한 여생을 보내는 어르신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8.3%인 396만 명에 이르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우리시의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18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일하고 싶고, 일할 수 있는 노인들께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우리시가 발 벗고 나섰다.

글·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김성환 (자유사진가)

할아버지와 함께 하늘천 따지~

지난 3월 31일. 재능대학 대강당에는 20대의 대학생이 아닌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빼곡히 자리를 채웠다. 우리시가 모집한 실버유아보조강사 교육생 수료식 현장이다. 핵가족화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요즘, 아이들에게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고학력 어르신들께는 사회에 참여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시가 실버유아강사를 모집해 운영하고 있다.

삼산동 주공2단지에 자리잡은
뜨란채어린이집에서는 하늘천,

따지 소리가 울려 퍼진다. 교실 안을 들여다보니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께서 아이들의 책상 사이를 오가며 획순을 바로 잡아 주고 계신다.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는 ‘훈장님’은 숭실고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을 한 박춘성 어르신(71). 박춘성 씨는 “실버유아강사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정년퇴직한 후로 평생 같고 닳은 지식을 썩히게 되는구나 하는 아쉬움을 가졌었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다시 가르치게 되니 우리 늙은이들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생깁니다.”라며 매우 즐거워한다. 한자를 배우는 아이들도 신이

음을 가졌었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다시 가르치게 되니 우리 늙은이들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생깁니다.”라며 매우 즐거워한다. 한자를 배우는 아이들도 신이

뜨란채어린이집에서
한자교육을 하고 있는
실버유아강사 박춘성 씨

나기는 마찬가지. 윤다는 어린이(굴포초 3)는 “우리가 한문 쌤이라고 부르는데요, 학교 선생님보다 안 무서워서 천만다행이구요, 한자가 재미있어요.”라며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는다.

박춘성 씨처럼 ‘실버유아보조강사’로 명명된 어르신들은 집에서 가까운 민간보육시설에 배치를 받아 일주일에 세 번씩 4시간 동안 한자, 동화구연, 보조강사 등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일’을 하고 월 20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이를 위해 우리시는 60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 중 자격증이나 경력을 소지했거나 교직은퇴자 등으로 참여자를 모집했다. 그 결과 195명이 신청해 재능대학 에듀테이너교육센터에서 한 달 동안 교육을 받고 집에서 가까운 195개소의 민간보육시설에 각각 배치를 받아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뜨란채어린이집의 임재숙 원장은 “지금은 초등학교생들에게 방과후 수업으로 한자교육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하반기에는 원아들에게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어르신들이 유아들의 수준에 맞게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의 _ 시 가정청소년과 (440-3956),
각 구청 사회복지과 및 거주지 동사무소 노인복지담당자

우리 동지, 동병상련 느껴요~

도화2동사무소 김선숙 사회복지사와 함께 찾은 김근순 할머니(98)은 화창한 봄날과 대조적으로 아직도 한겨울의 추위가 남아있는 듯 하다. 아흔 여덟의 노구를 움직이는 것조차 힘에 부치는 듯한 김근순 할머니 곁에 또 다른 할머니 한 분이 손을 꼭 잡고 앉아 있다. 이틀이 멀다하고 찾아오는 윤옥분 씨(68·남구 도화동)다. 윤옥분 씨는 우리시에서 모집한 노-노케어 도우미. 윤 할머니는 김근순 할머니 말고도 김금순(82), 김옥임(79) 할머니때도 차례로 방문한다.

홀로 사는 노인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며칠째 집안에 방치돼 있었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 요즘이다. 우리시는 도우미 노인이 다른 노인 3명을 찾아가서 돌보는 ‘노-노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윤옥분 씨처럼 우리시가 모집한 노-노케어 도우미는 모두



노·노케어에 참여하고 있는 윤옥분씨가
김근순(위) 김금순(아래) 할머니를 돌보고 있다.

240명. 이들이 찾아가는 노인은 제도적으로는 비보호 대상인 차상위 계층의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다. 도우미들은 외롭고 쓸쓸하게 홀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어르신을 일주일에 세 차례씩 찾아가 말벗을 해주거나 집안일을 대신 해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한달에 얻는 수입은 20만원. 비록 적은 돈이지만 도우미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됐으니 신명나게 일할 수 있고, 도움을 받는 어르신들은 친구처럼, 자식처럼 의지할 사람이 생겼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이다.

윤옥분 씨는 “김 할머니가 워낙 깔끔한 성격이시라 집안일은 손도 못 대게 하세요. 저를 보면 먼저 돌아가셨다는 말 같은지 손을 붙잡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시고 제가 집을 나설 때면 오히려 조심해 가라며 문밖까지 배웅을 나와 제 걱정을 해주시지요.”라며 “저는 형편이 어려워 꼭 일을 해야 하는데 힘 안들이고 이렇게 편하게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라고 고마워한다.

문의 _ 시 가정청소년과(440-3956),
각 구청 사회복지과 및 거주지 동사무소 노인복지담당자



구석구석 치우고 광내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후 동네 구석에 자리 잡은 쓰레기통은 애물단지가 돼 버리기 십상이다. 아파트라도 되면 경비원이 있어 정리를 한다지만 주택가에서는 방치된 종량제 봉투를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청소차가 와서 치워가기 전까지 쓰레기봉투 위에 쓰레기가 더해져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경우도 많다.

한가로운 오전시간이면 쓰레기봉투를 정리하고 동네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다. 바로 ‘우리동네환경지킴이’들이다. 우리시가 일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께는 일자리를 드리고 뒷골목 환경을 개선해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책으로 지난해 34억원을 투자해 139개동에 연인원 2천502명을 고용했다. 올해도 2천22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환경지킴이 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로 매일 4시간씩 열심히 일해 33만원의 임금을 받는다.

문의 _ 거주지 동사무소(노인복지담당 직원)



연수구노인인력관리센터의 주선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일하는 어르신들

노인취업정보센터에서 ONE STOP 서비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여러 노인들께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전문 기관이 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인천시노인취업정보센터(회장 신원철)다. 최근 2년간 개최한 노인취업박람회에 참여한 7천여 명의 어르신들 대부분이 구직신청 후 채용소식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 미취업 장기대기 노인들의 취업욕구 해소에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이다

센터는 5월 1일 우리시가 2억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노인복지회관 안에 문을 열고 어르신들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노인에 맞는 일자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하며 평가관리해야 한다. 또한 차원 높은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인력의 체계적인 관리와 수급대책, 틈새시장 개발 역시 절실히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이 앞으로 노인취업센터가 할 일이다.

센터는 전국 최초로 노인취업박람회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취업전문 상담사를 채용하며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및 인식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발굴과 교육훈련의 강화, 인력풀제를 활용한 광역 단위 사업 운영을 통한 효율성 증대에도 힘쓴다. 센터는 앞으로 우리시와 (재)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보건복지부, 각 기초 자치단체, 노인단체, 각 취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연수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일자리 필요한 어르신 “어서오세요”

연수구 청학동 청담경로당 2층에 자리잡은 연수구 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안석봉, 818-2111)는 2004년 9월 문을 열었다. 연수구에 거주하는 55세 이상의 주민이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구직자가 센터를 방문하면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상담을 통해 접수한다. 한편 기업체 등에 전단지를 돌려서 구인정보를 수집하는가 하면 쇼핑백 포장 등 일자리를 만들어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기도 한다. 그동안 일자리를 찾기 위해 센터를 방문한 사람은 1천192명. 이중 연인원 57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는 다양하다. 공원·환경지킴이 공영주차장관리 등을 비롯해 경비, 청소, 기업체, 주유원, 건물관리, 식당보조, 아기돌보기, 가사도우미 등 파견형 일자리 및 기업체 제품조립 공동작업, 실버택배, 과일도시락 제조배달 등 시장형 일자리를 구축하기도 한다.

쇼핑백을 제작하는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안준에 할머니(80·연수구 청학동)는 노인정에서 있는 것보다 소일거리가 있는 이곳이 좋아서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있다. 센터가 문을 연 2004년 12월부터 시작했으니 벌써 1년 반 가량을 하루같이 열심히 일한다. “애들은 힘들지 않게 소일거리로 하라고 하지. 팔십 먹은 늙은이를 누가 써줘. 그래도 여기에서 일하면 심심치도 않고 돈도 벌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손주들 100점 맞았다고 하면 자랑면도 사주고, 외식도 시켜주고...”하며 즐거워하신다.

선학역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만난 박효만 할아버지(75·연수구 선학동)도 다르지 않다. 젊었을 때는 공직생활도 하고 일반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으니 주차장에서 쓰레기를 줍는 일이 우스워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좋고 운동 삼아 일을 하니 즐겁기만 하시란다. 연수구 노인인력관리센터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센터라 더 의미있다. 연수구 관내 어르신들만 이용할 수 있어 조금은 아쉽지만 연수구를 시작으로 다른 군·구까지 확대되길 기대한다.



연수구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귀땀해주는 노인취업(재취업)에 대한 마음가짐

-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은 희망직종을 한두가지로 한정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것이 빨리 취업하는 길이다.
- 여가활용을 위한 취업은 급여보다는 적성과 흥미에 맞는 일자리를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구해야 한다.
- 재취업 성공비결
 - 실직 당사자가 눈높이를 낮추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 채용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획득하고, 직종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
 -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꾸준한 노력으로 자기계발을 해야 한다.
 - 면접시나 평상시에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보면서 개방적인 태도로 내가 먼저 인사하여 첫인상을 좋게 만들어야 한다.
 - 과거에 집착하여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연장자로서 매사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 대화로 갈등해소 방법을 익히고, 권위주의식 보다는 이해하고 협조하는 지혜로움을 보여야 한다.
 -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어 세뇌시켜야 하고, 구인자가 바라는 매너를 지켜야 한다.

굿인천 굿뉴스

세계 최초 DMB 개통



인천지하철공사가 지난 3월28일 세계 최초로 인천지하철에서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을 개통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하철 1호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역 구내와 전동차에서 KBS, MBC, SBS, YTN 등 7개 TV채널과 13개 라디오채널을 수신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지상파 DMB는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신호를 디지털 방식으로 수신기에 제공하는 방송서비스다.

문의 _ 인천지하철공사 451-2114

6시그마로 거듭난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국내 지자체 소속 상수도사업소 중에서 처음으로 6시그마(Sigma)를 이용한 경영혁신에 나선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고객만족 극대화과 생산효율 제고 차원에서 6시그마를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전체 공정과 대민 서비스 분야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전 공정을 엄밀히 분석한 후 문제점을 찾아내는 매핑(Mapping)기법의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 기법은 통계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서비스처럼 자료를 정형화하기 어려운 비제조업 분야에서 높은 효능을 발휘하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 같은 기법을 이용해 올 하반기 중 전체 공정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관련 직원 교육을 시킨 후 내년부터 문제점 개선 및 경영혁신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문의 _ 시 상수도사업본부 860-8390

선광문화재단 장학금 수여



선광문화재단(이사장 심명구)이 지난 4월15일 인천고등학교에서 우리시 고교생 153명에게 장학증서 수여했다. 장학금 수여 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며 1년 학비 전액과 매달 5만원씩 학습지원비를 지급한다. 이 재단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향만하역·물류 회사인 (주)선광이 5억원을 기부해 지난 2002년 설립됐으며 2003년부터 매년 다양한 장학 사업을 펼치고 있다.

문의 _ (재)선광문화재단 773-1177

우리시 전자정부 단연 'T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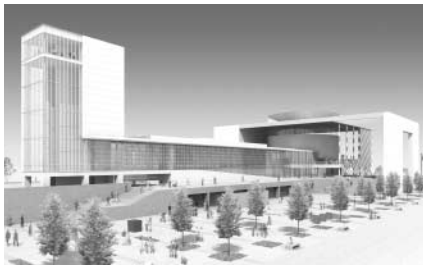
우리시의 홈페이지(www.incheon.go.kr)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의 모범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2005년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전자정부 평가에서 국내 광역시 중 1위, 세계 100대도시 기준 4위라는 괄목할 만한 평가를 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11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 외신기자클럽 라운지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방전자정부 평가결과' 기자회견에서 발표됐다.

이번 평가는 UN과 미국행정학회가 후원하고 미국 Rusters대학교의 e-거버넌스 연구소(EGI)와 성균관대학교 전자정부 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했다. 전자정부 평가는 웹을 통한 시민의 공공정보이용과 서비스 전달 등의 수준을 측정하고 전자 거버넌스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세계 100대 국가, 100대 도시 공식 웹 사이트, 국내 15개 광역시 및 각 도별 인구 상위 2개 도시 18개 시 총 33개 도시를 대상으로 보안·개인정보보호, 사용편의성, 내용구성, 행정서비스, 시민참여성 등 5개 분야 98개 항목을 평가했다. 그 결과 인천은 국내 광역도시 평가에서 1위로, 국제도시평가에서 서울, 뉴욕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했다.

문의 _ 시 정보화담당관실 440-2332



국내 최대 아쿠아리움 착공



지난 4월11일 국내 최대 규모의 수족관인 '인천아쿠아리움'이 착공됐다. 연수구 옥련동 아암도 해상공원 인근 1만4천여평에 들어설 이 수족관은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내년 9월에 완공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원형수조(높이 9.5미터, 지름 6미터)가 설치될 '인천아쿠아리움'은 서울 코엑스아쿠아리움보다 1.5배, 대한생명 아쿠아리움보다 6배 큰 우리나라 최대규모다. 이곳에는 고래, 상어 등 세계 650여종 약 5만3천여마리의 수중생물들이 전시될 계획이다. 또 다이버체험, 레스토랑, 기념품 판매점, 어린이 야외 공원, 입체영상관, 서해 일몰과 송도국제도시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 등이 설치된다. 이 수족관이 설립되면 해양도시 인천을 상징하는 관광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_ 시 관광진흥과 440-4063

우리시, 환경관리 일등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가 추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 환경관리 실태를 조사한 환경부의 평가에서 우리시가 경기도, 경상남도과 함께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우리시는 자율점검업소 지정, 배출업소 지도점검,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활동, 영세사업장 기술지원 등 평가대상 4개 분야 모두 우수로 평가됐으며, 특히 지도·점검 실

적과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분야 실적이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우리시에서 시행 중인 집중관리대상 배출업소 지정·관리제도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할 우수 관리 사례로 꼽혔다.

문의 _ 시 환경보전과 440-3515

'울통불통' 보디빌딩팀 창단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지난 4월12일 보디빌딩 실업팀을 공식 창단했다. 보디빌딩팀은 체육회의 선수단을 인수해 운영하게 되며 최영안 감독과 선수 7명이 실업팀을 이끌게 된다. 이번 창단으로 지역 내 실업팀 창단을 선도하고 학교 체육과 연계해 우리시 체육발전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시 산하 지방공기업에서도 상반기에 각각 실업팀을 창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인천지하철공사는 궁도팀을, 인천교통공사는 볼링팀을 창단할 예정이며 도시개발공사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각각 남자핸드볼팀과 인라인롤러팀 창단을 검토하고 있다.

문의 _ 시 체육진흥과 440-4079

국내 최대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중구 항동 연안부두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들어선다. 우리시는 중구 항동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

전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이 부지에 수협 통합 위판장과 종합어시장, 회 백화점 등 수산물 도·소매시설, 저온 저장고, 제빙시설을 갖춘 10만평 규모의 수산물종합유통단지(수협연수물산지)를 건립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산물종합유통단지는 2,000억 원이 투입돼 빠르면 오는 2008년 공사에 들어가 2012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유통단지에는 수협중앙회와 인천·용진 등 3개 수협 위판장이 통합된 수협 공동위판장이 설치되고 지난 70년대에 조성돼 500여개 점포가 성업 중인 3,500평 규모의 '인천 종합어시장'도 이곳으로 이전된다.

문의 _ 시 수산과 440-3212

인천항 통해 첫 수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인천항을 거쳐 지난 3월말 처음으로 해외로 수출됐다. 지난 3월27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주)대화연료펌프의 자동차용 연료펌프를 담은 40피트짜리 컨테이너 2대가 개성에서 육로를 통해 인천항에 도착했으며 28일 연안 컨테이너선을 이용해 부산항을 거쳐 외국으로 수출됐다. 2004년 12월 개성공단에서 주방기기업체인 리빙아트가 시제품을 생산한 것을 비롯해 15개 기업이 자사 제품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으나 인천항을 거쳐 수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출항을 계기로 우리시가 대북 교역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앞으로도 인천항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 _ 시 항만공항물류과 440-3453

급할 때는 119누르세요

우리시 소방방재본부는 각종 긴급전화 관련 상담기관에 신속히 연결하는 '119 One-Call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우선 남구, 연수구, 남동구에서 시범운영되며 여성긴급상담(1366), 청소년긴급상담(1388), 노인학대상담(1389), 아동학대상담(1391), 응급의료상담(1339) 등의 번호를 대신하게 된다. 한편 소방방재본부는 내년 6월까지 소방상황실, 재난종합상황실, 민방위경보통제소 등의 기능을 통합한 최첨단 소방정보시스템 '119종합방재센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문의 _ 인천소방방재본부 464-0536

영상문화 우리시에서 꽃핀다

지난 4월13일 우리시 영상문화 전반을 책임질 영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영상위원회는 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제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이미지 제고 및 간접홍보, 시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영화사 '마술피리' 대표 오기민 씨와 영화배우이자 대학교수로 활동 중인 장미희 씨 등의 위촉위원 9명, 관계기관 협력위원, 당연직위원 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앞으로 영상물에 대한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_ 시 문화예술과 440-4110

질러가는 고가교 & 넓어지는 도로



부평구 부평공원~ 경인국도 삼릉 삼거리를 잇는 남부고가교가 지난 3월23일 개통됐다. 이 고가교는 164m, 폭 15m의 왕복 4차선으로 완공됐으며 경인전철의 철로 위를 지나간다. 2004년 8월부터 총89억원을 들여 건설했으며 경인전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으로 나뉜 부평구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교통 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3월 31일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대교를 거쳐 제3경인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왕복 6차선의 송도해안도로를 12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시작됐다. 총연장 5.92km의 송도해안도로 폭을 현재 40m에서 75m로 넓히며 2009년 4월 완공예정이다.

문의 _ 시 도로과 440-3793

공원과 쉼터가 있어 행복해요

연수구 선학동과 동춘동 인근 공원 4곳이 테마공원으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올 상반기에 14억원을 들여 선학2~7호 공원과 동춘동 청은어린이공원을 특색있는 테마공원으로 리모델링한다. 공원에는 놀이터, 목재테크, 파고라, 조형음수전 등이 설치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바닥재를 사용할 예정이다. 또 기존의 낡은 시설을 교체해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계양구는 지난 3월28일 뽕밭근린공원 준공식을

가졌다. 2005년 6월부터 계양구 작전동 일원 3천529평 부지에 77억8천7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조성됐다. 뽕밭근린공원에는 다목적 운동장, 체력단련시설, 미니농구장, 어린이놀이터, 터널분수, 지압 보도 등이 설치돼 인근지역 주민들과 어린이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문의 _ 연수구청 817-1011 / 계양구청 450-5114

근대문화재 4곳 새로 지정



문화재청은 지난달 13일 중구의 중국음식점인 공화춘, 용현동의 수준원점, 중구청사, 구 일본우선주식회사 등 4곳을 근대문화재로 지정했다. 공화춘은 한국식 자장면의 발상지로 1905년 건립된 2층짜리 건물로 당시 청(淸)조계지의 건축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인하대학교와 인하공업전문대학의 경계에 위치한 수준원점은 우리나라 국토 높이 측정의 출발점으로 1913~1916년 인천앞바다 평균해수면을 측량해 설치했다. 현재 중구청사로 이용되고 있는 구 인천부청사는 1933년에 건립돼 광복이후 경기도 인천 시청사, 인천직할시 청사로 사용됐으며 모더니즘 건축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 1933년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구 일본우선주식회사의 인천지점으로 사용했던 건물도 근대문화재로 지정됐다.

문의 _ 시 문화예술과 440-4035

송의운동장·제물포역 일대 재개발

남구 송의운동장 일대와 제물포 역세권이 재개발된다. 2009년 완공될 송의운동장 재개발 사업은 2만7천여평에 경인전철 도원역과 주상복합 건물, 축구장을 연결하는 입체도로로 건설한다. 상업용지에는 15~25층 규모의 상가, 오피스텔, 문화시설 등을 갖춘 복합건물과 40~70평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는 등 웰빙타운으로 조성된다. 한편 2013년에 완공될 30만평 규모의 제물포 역세권은 인천대 이전 개발과 연계해 초고층 주상복합, 오피스타워, 전문학원

단지, 특화 및 전문상가, 공원 등을 조성하는 등 주거·상업·업무·학원의 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문의 _ 시 개발계획과 440-3423

시립도서관, 수도권 최대 도서관 신축

인천시립도서관 신축공사가 민간투자시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라 오는 9월에 착공된다. 시립도서관은 2008년말 개관을 목표로 총사업비 240억원을 들여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1만3천여㎡로 남동구 구월동에 건립된

다. 도서관은 다목적 공연장과 취미·교양 교실, 열람실 등을 갖춰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장으로 꾸며질 전망이다. 또 영종도서관과 수봉도서관, 검단도서관 등 3개 도서관을 시립도서관 지역분관으로 건립해 2008년 중에 개관할 예정이다.

문의 _ 시 문화예술과 440-4015

경제자유구역소식

세계 패션의 메카로 만든다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단지 22만평에 세계적인 규모의 패션타운이 들어선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3월31일 프랑스 패션협회와 공동으로 '패션아일랜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패션아일랜드는 베르사체, 버버리 등 유럽 명품브랜드 400여개사를 회원으로 둔 프랑스 뿌레다쁘르떼 패션협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약7천억원을 들여 2010년을 목표로 내년부터 컨벤션센터, 아카데미, 쇼핑몰 등을 포함하는 패션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외국의 대규모 설계회사가 참여해 외관도 국제적 수준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국제수준의 패션쇼도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_ 인천국제공항공사 1577-2600

유망기업, 송도로 러쉬



송도국제도시 내에 산업기술연구집적센터가 지난 4월14일 착공됐다. 송도테크노파크 산업시설구역 내에 들어설 이 센터에는 우수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의 R&D시설이 들어선다. 154억원을 들여 1천776평 부지에 지하층, 지상5층 연면적 4천192평 규모로 내년 3월까지 완공될 예정이며 기업연구소 45곳과 갯벌타워 입주기업 및 시험생산동 45곳 등 90곳의 첨단산업연구소가 입주할 예정이다.

문의 _ 시 과학기술과 440-2814

한·중 물류센터 세운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월16일 중국 칭다오시와 '한·중물류센터 건립사업에 관한 투자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졌다. 한·중물류센터는 양국의 물류기업이 교차 합작방식으로 인천과 중국 칭다오에 각각 설립할 예정이며 두 도시 간 해상운송 물류의 보관, 조립, 전시, 판매와 공동 집배송 등 내륙물류망을 연결하는 거점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시는 인천 남항 제1준설토투기장 내 약3만2천평 부지에 총 2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년 1월에 센터 건립을 착공하며 칭다오는 2007년 하반기에 착공해 2008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문의 _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114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개장

지난 3월30일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개장식이 공항물류단지 (주) 인천국제화물센터에서 열렸다. 관세장벽 없이 각 나라 기업들이 입주해서 생산과 물류활동을 할 수 있게 될 이 지역은 화물기가 드나드는 화물터미널 33만평과 제5활주로 예정지인 공항물류단지 30만평 등 모두 63만평이 조성됐다. 현재 세계2위의 물류기업인 독일의 (주)쉴커코리아와 일본의 KWE코리아 등의 외국사 2곳을 비롯해 삼성전자로지텍, 범한종합물류 등 국내사 10곳이 입주해 있다. 물류 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10년 쯤이면 1만명의 고용과 7천3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장행사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인천을 동북아시아 물류·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정부의 지원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문의 _ 시 항만공항물류과 440-3456

‘국내’ 학비로 미국에 유학간다

글 • 윤지선 (청소년웹진 MOO 제6기 학생기자, 인천외고 1학년)



지난 3월 25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는 인천시와 미국 앵커리지시의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하여 인천국제교류센터 주최로 알래스카 앵커리지 대학교(UAA) 입학요강과 변경된 토플제도(IBT)라는 제목으로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를 위해 본 대학 관계자 및 학장님께서 자리를 빛내주셨다. 또한 이번 설명회에는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가로 미국유학에 관한 인천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행사의 백미는 역시나 대학교에 관한 설명이었다. 앵커리지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알래스카는 북아메리카 북서쪽 끝에 있고,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매킨리산과 반짝이는 빙하 그리고 맑고 투명한 호수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이다. 그 중 앵커리지 대학교(UAA)는 알래스카에서

가장 큰 대학교, 8개 학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에서 명문대학교로 손꼽힌다. 그런데 인천-美 앵커리지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하여 UAA를 인천시민이라면 등록금을 1/3만 내고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입학신청은 5월1일이고, 학기 시작 6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SAT, ACT, ASSET등의 성적 외에 토플점수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다.

비용을 따져보면 인천출신 학생일 경우 1년을 기준해서 약 1,530만원이 드는데, 현지학생과 비슷한 비용이라고 하니 정말 좋은 기회다. 그런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제도는 없고, 아르바이트 활동을 금지한다는 것과 한 학기당 최소 1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는 약간의 부담이 있다. 그런데, 굳은 결심을 하고 이국에 가서 공부할 것이라면 성적유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다나은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이는 자신이 감수해야하고, 숙지해야 할 것들이다.

유학길을 오르려면 토플은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다. 토플이 올해부터 기존과 다르게 시행될 예정이라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혼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중 IBT는 인터넷을 통해 시험을 치른다는 의미로 새로운 유형의 차세대 토플을 일컫는 말이다. IBT가 5월부터 시행이 되면 CBT는 사라지게 되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평가를 하게 될 예정이다. 기존의 CBT와 비교한다면, 말하기가 새로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약간은 지루하고, 따분할 수 있는 행사 분위기는 질의응답과 경품추첨 시간을 통해 반전되었다. 유학에 관한 많은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학부모임의 질문과 응답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은 우리 같은 고등학생이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었는데, 아직 학교에는 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지만, 방학을 통해 할 수 있는 단기간의 코스는 계획할 것이라고 말을 덧붙였다.

요즘 같은 지구촌시대에 살고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한정된 시야에서만 공부하고, 생활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 외국의 문화도 배우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앞으로 글로벌시대에 발맞춰 간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여러 방법을 통해 국제 감각을 키우고, 시야를 넓히면서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넓고, 깊은 사고를 배양한 지식인이 되고 싶다. ✨



분수에 뛰어난 동심
분수를 처음 보는건지... 봄나들이 나온 아이의 표정이 제법 진지하지만 하네요.
하준석 (계양구 효성동)



지 지어 게~
1994년 4월 23일. 제가 5살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인형들을 작은 통에 넣어서 각자의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송진규 (경기도 부천시)



어린 숙녀들의 봄나들이
이종사촌들이 봄나들이입니다. 이제 봄꽃이 올라오듯 이종사촌 자매의 포즈도 어색하지만 싱그럽습니다. 먼 훗날 어릴 때 이 사진의 모습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지 벌써 궁금합니다.
전정오 (연수구 선학동)



형만한 아우 없다?
결혼 5년 만에 얻은 아이입니다. 아내의 애타는 마음을 알았는지 삼신할머니는 한꺼번에 쌍둥이를 점치해 주셨지요. 노란 셔츠를 입은 아이가 동생(지우)인데 덩치가 언니(지수)보다 커서 언니가 매일 당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죠. 앞으로 우리 지수, 지우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기원해 주세요.
최용석 (서구 가정3동)



과거체험
수도국산박물관이에요. <굿모닝인천>에서 처음 소개했을 때 바로 간 덕분에 무료로 관람했지요. 연탄불 피우던 모습, 땀튀기 아저씨, 교복... 그리고 과거의 체험까지. 6, 70년대의 모습들의 재연은 힘들었던 과거를 어스름에 생각나게 합니다. 부모님과 가족들이랑 가면 더 좋아요~
성옥경 (연수구 동춘2동)



보고싶은 전우들
1984년 공군헌병대 군복무 당시 기차역 철도에서 잔뜩 품잡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지난 옛 추억들이 자꾸 그리워집니다. 군복무시절 동고동락했던 전우들! 그리고 만식이, 호순아 잘들 지내냐? 보고싶다.
김완균 (중구 송학동)



내가 먼저 찜했어!
오빠 : 나도 좀 여기 있을게~
나 : 안돼! 내가 먼저 올라왔어, 내려가!
오빠 : 아악~~~
20년전 이불장에서 오빠와 놀이하던 그때가 소중히 담겨있는 사진입니다.
이지원 (남동구 만수4동)



아이~ 부끄럼사옵니다
안면도 여행길에 길가 소공원에서 잠시 쉬던 중 눈길을 끄는 조각상이 있어 카메라를 들이댔더니 아내가 달려와 여인의 가슴을 손으로 살짝 가려주었습니다. 질투심이 발동한 것일까요?
김주만 (남구 송의4동)



북성부두가 영원하길
중구에는 북성부두가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 고깃배가 들어오면 뱃전에서 살아있는 삼치며 새우며 게 등을 사기위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정겨운 흥정이 오가고 부둣가에 있는 허름한 술집에서 소주한잔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서민에게 정을 나누어 주는 북성부두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우 (중구 북성동1가)

장원에 도전하세요 <굿모닝인천>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사진을 공모합니다. 주제는 따로 없으며 추억의 사진이나 인천의 아름다운 모습, 사연이 담긴 사진 등이면 환영합니다.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100자 이내)을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특히 응모하신 작품 중에서 가장 재밌고 좋은 사진은 장원으로 뽑아 문화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잘뚫힌 주꾸미,
천국의 미(味)를 가지다

주꾸미 볶는 마을, 만석동

바야흐로 주꾸미의 계절, 주꾸미 볶음의 원조로 알려진

‘원조할머니집’을 찾았다. 경인철도의 시발점인 인천역 부근의 동구 만석고가 밑에는 주꾸미 음식점이 4~5곳뿐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주꾸미 골목’으로 유명세를 탄 데에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다.

주꾸미의 재발견

73세 우순임 할머니의 웃는 얼굴에는 한(恨)깊은 주름이 그동안의 세월을 말해주는 듯하다. 황해도 연백에서 군산까지 피난을 내려갔다가 서른 살에 인천으로 다시 올라와 터를 잡기 시작했단다. 만석고가 밀 포장마차에서 선짓국, 닭발, 주꾸미 숙회 등을 팔던 중 서울에서 오는 단골손님이 “서울엔 무교동 낙지가 유명한데 인천에 주꾸미가 잘 잡히니까 주꾸미볶음을 개발하는 게 어떨까요?”라고 권유해 주꾸미볶음을 시작했다.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이어받은 우 할머니는

황해도 연백의 맛을 고스란히 옮겨왔다. 낙지에 비해 머리로 작고 기력지도 짧고 뚱뚱한 주꾸미가 우 할머니 손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주꾸미가 낙지보다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적도 없었을 것이다. 그 당시 마땅한 홍보매체가 있었겠는가, 손님들은 입소문으로 아름아름 찾아오기 시작했고 ‘주꾸미볶음’ 하면 단연 만석고가를 떠올리게 되니 이젠 방송이든 신문이든 언론에서 찾아오는 게 부담스럽단다. 혹여나 지금보다 서비스 질이 떨어져 손님들에게 기분 좋은 식사를 대접하지 못할까봐... 이렇게 소박하게 시작했다가 대박이 난 것이다.

그 맛의 비결을 캐다?

주꾸미볶음을 배우기 위해 일일요리사로 신청한 이혜련(35세) 씨는 인천에 온지 1년도 채 안된 젊은 주부다. 연락하기가 수월치 않았던 이 씨는, 역시나 평일에도 동분서주하며 무언가를 배우며 자기계발에 적극적인 주부였다. 우연인지, 인연인지, 대한제당에 다니는 신랑을 따라 알게 된 ‘원조할머니집’의 단골손님이었고 그 맛에 반해 주꾸미볶음을 배우고 싶던 차였다. 그래서인지 이씨는 궁금한 것도 많다. “가끔 매운 게 생각날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 집을 찾아요. 알싸한 주꾸미볶음 맛에 중독된 거 같아요. 근데 할머니, 재료가 특별한 게 없는데 저는 집에서 하면 이 맛이 안나요. 비결이 뭐예요?” 사실 특별한 재료가 없다. “비결이 따로 있나? 난 재료 하나하나 내가 골라. 주꾸미를 대량으로 살 때도 죽은 거 한 마리만 있어도 안사거든. 갯것은 갯것 그대로 요리해야 고유의 맛을 낼 수 있어. 고춧가루도 내가 직접 말려서 사



용해. 재료 아끼면 절대 안돼. 그리고 손대중으로 하면 그냥 맛이 나...” 우문현답이다. 까다롭게 고른 신선한 재료에 40년 넘는 노하우에서 나온 손맛이 그 정답이다. 요리를 배우는 도중에도 양념의 양이 가늠이 안되는 5년차 주부는 연신 혼나지만 그래도 좋은 재료를 써야한다는 비법 아닌 비법을 배워 뿌듯하다. ☀



여러분도 일일 요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주부는 <굿모닝인천> 편집실 (440-2072)로 연락 주세요.

주꾸미 맛나게 보기

〈자료〉

주꾸미 (10마리)1kg 미나리, 양파, 간장, 청양고추, 흑설탕, 참기름, 파, 다진 마늘,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만드는 방법〉

- ① 주꾸미 손질하기 - 머리쪽을 뒤집어 먹물통과 눈을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내장을 제거해 소금에 비벼 씻는다.
- ② 야채 다듬기 - 미나리는 다듬어 씻어 5~6cm로, 양파는 1~2cm 두께로 썰고 청양고추는 아주 가늘게 채낸다.
- ③ 주꾸미와 야채를 넣은 냄비에 온갖 양념으로 힘껏 버무리 후 중불로 볶는다. 오래 볶으면 질겨지니 주의한다.

〈주꾸미 고르기〉

- ① 국산 주꾸미를 써야한다. 수입산은 대체로 짜고 볶을 때 물이 많이 생기며 질기다.
- ② 보통 3월~6월까지 제철로 알려져 있지만 5~6월 산란기를 앞둔 3~4월에 맛이 가장 좋고 쌀밥같은 알이 꽉 차있다.
- ③ 뽀뽀하지 않고 표면이 오돌도돌한 것으로 고른다.





“불가사리가 바다의 별 같아요” 인천시 수산종묘배양연구소

바다는 얼마나 넓을까? 바다 밑은 어떻게 생겼을까? 바다 속엔 어떤 생물들이 있을까? 파도는 왜 일어날까? 밀물과 썰물이 발생하는 원인은? 호기심으로 가득한 여섯 친구들 강진원(만수중학교 1년), 강지현(인수초등학교 6년), 김석진(먼우금초등학교 5년), 김령아(인수초등학교 2년), 강지우(7세), 강동훈(6세)과 함께 바다에 대한 온갖 궁금증을 풀기 위해 용진군 영흥면 수산종묘배양연구소로 향했다.

글 • 한정민 (전 더클래스 기자) | 사진 • 김성환 (자유사진가)

바다가 보이는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

영흥도는 2001년 10월 영흥대교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연안부두에서 뱃길로 1시간 반 거리였던 곳. 하지만 일행은 월곡IC에서 시화방조제, 대부도, 선재도를 지나 영흥도로 이어지는 길을 배 한 번 타지 않고 갈 수 있었다. 도로 양 옆으로 펼쳐진 질푸른 바다를 맘껏 감상하면서 아이들은 가는 길 내내 차창을 스치는 경관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영흥화력 발전소가 나타난다. 세계 최대라는 해상송전선로와 첩탑이 장관이다. 남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니 드디어 대지면적 18,710평의 인천광역시 수산종묘배양연구소가 모습을 드러낸다. 참 넓고 조용하고 깨끗하다. 햇볕 따사로운 봄날인데도 비릿한 바다 내음을 실은 바람이 제법 거세다.

밝은 베이지색 정장을 곱게 차려입은 차순옥 선생님이 아이들을 반갑게 맞았다. 연구소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1층에 체험학습관이 기다리고 있다.

“드디어 재미있는 바다여행의 시작이다!”

물고기를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학습장에는 유치원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천의 바다와 섬, 생물과 서해안 갯벌이야기가 아기자기한 그림과 함께 전시돼 있다. 령아, 지우, 동훈이가 꼼꼼하게 이것저것 들여다보는 가운데 만형인 중학생 진원이는 다소 시시한 듯 서둘러 발걸음을 옮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터치 풀(Touch Pool). 손으로 직접 물고기와 조개 등을 만져 볼 수 있는 공간을 보자 여섯 아이들 모두 흥이 난다. 바위 위에 전시된 각양각색의 조개를 집어든 아이들은 문질러도 보고 두드려 보며 마냥 신기해한다.

‘찰랑, 찰랑’ 조그만 파도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발길을 돌리니 바닷물을 건물 안으로 끌어들이려 만든 작은 바다다. 불가사리와 성게, 해삼 등 시장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것들을 직접 물에서 건져보는 아이들. 불가사리는 친구들에게 단연 인기 1순위다. 몸통에 해당하는 체반을 중심으로 다섯 개의 팔이 다섯 방향으로 뻗어 있는 데다 연노랑, 보랏빛을 띠고 있어 마치 별 같다. 우리나라 바다에서 가장 흔한 ‘아모르 불가사리’는 다리 하나가 떨어지면 다시 자란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아이들. 잘린 꼬리가 다시 자라나는 건 도마뱀뿐만이 아닌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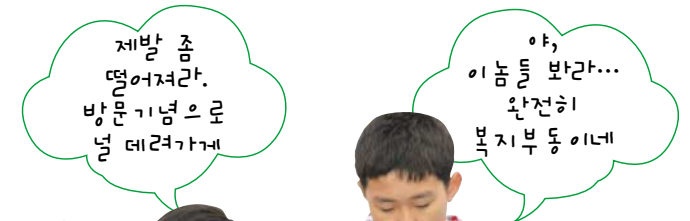
“불가사리는 주로 조개류를 잡아먹는데 홍합을 아주 좋아합니다.”

차 선생님의 설명에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예쁜 빛깔을 띤 바다의 마스코트쯤으로 알았는데 조개까지 마구 잡아먹는 포식자이구나... 놀라운 모양이다.

바위에 찰싹 붙어있는 전복을 직접 떼면 주겠다는 차 선생님의 말을 듣고 친구들이 힘을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국 아무도 전복을 떼어 내지 못했다. 해녀들이 칼로 요령껏 떼어내야 겨우 떨어진다.

이번엔 성게다. 지현이가 성게를 집어 들자 너도 나도 그 자흑색의 뽀족뽀족한 동물을 하나씩 집어 든다.

“우리나라와 일본 연해에 분포해 있는 성게는 보통 지름 6cm가량 되지요. 입은 한가운데에 있고 항문은 위에 있어요.”





는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소라껍질 입구에 귀를 바짝 붙인 채 눈을 감는 아이들. 지난 여름방학 때 갔던 바닷가의 추억을 떠올리는지 천진한 얼굴마다 환한 미소가 피어오른다.

크레파스를 이용해 꽃게, 불가사리 등의 모양을 탁본으로 떠서 기념으로 간직하기로 했다.

석진이는 다채로운 색을 이용해 멋진 작품을 만들었다. “우와 멋지다~” 동생들이 부러운 시선을 보낸다.

2층에 오르자 48석 규모의 입체 영상 시스템이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다. 생생한 화면의 3D 입체 만화영화에 아이들이 몰입하는 사이 20분이 훌쩍 지나간다.

“어린물고기는 아기처럼 돌봐야 한대요”

땅에 씨를 뿌린 뒤 수확해야 하는 식물처럼 물고기도 바다에 씨를 뿌리고 잘 보살펴가며 키워야 한다. 인천시 수산종묘배양연구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다. 치어(어린 물고기) 사육동을 포함한 7개의 생산동을 보유하고 있다.



꽃게, 조피볼락, 감성돔, 대하 등 다양한 어패류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방류한다. 물고기도 새끼는 예민하고 연약해 1시간에 한번씩 먹이를 줘야하고 물의 온도 등이 정확하게 맞아야 하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밤낮없이 노심초사 돌보고 있다.

때문에 단체관람도 되도록 자제하고 있다고 한다. 일행에게도 잠깐씩 두개 동을 둘러보는 것만 허용됐다. 서해안 특성에 맞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 수산자원을 늘리고, 어민들의 수입을 늘리는데 기여하고 있는 곳에 피해가 가면 안되니까.

“자 이제 갯벌에 가보자!” 차 선생님의 말에 아이들이 먼저 자연학습장으로 달려간다.

연구소 내 해송 군락지 1,295평에 조성된 자연학습장에서는 해안가에 자생하는 100여종의 염생식물과 서해안 갯벌 등 연안 생태를 체험할 수 있다. 다음엔 공을 가져와 갯벌에서 축구도 하고 맑은 공기 마시며 점심도 먹으면 딱 좋겠다고 한마디씩 하는 게 소풍 분위기다.

가꾸는 만큼 더 큰 선물을 주는 바다

‘유령그물’ 이라고도 불리는 바다 쓰레기는 햇빛이 바다 속까지 들어가는 걸 방해해 플랑크톤이나 해조류가 제대로 살 수 없게 만든다. 또 독과 병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내뿜기

도 한다. 이 유령그물 때문에 수많은 바다생물이 다치고 상처를 입어 우리 바다에서 사라지기도 한다.

바다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다. 즐거운 여행지가 되기도 하고 각종 생선과 조개, 게, 해조류 등 우리 식탁을 즐겁게 해주는 먹거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바다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바다 환경은 점차 더럽혀지고 파괴돼가고 있다. 오염이 심해지면 바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들이 사라져 더 이상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없게 된다. 결국 바다가 우리에게 주었던 많은 혜택도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자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에서 받는 혜택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남겨줘야 하는 것이다.☀

견학안내

- 관람대상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생 (단체 15인 이상 관람 가능)
- 예약방법 : (전화) 883-0398 (팩스) 883-0418
5월부터 온라인 인터넷 접수도 받을 예정

찾아가는 길

- 남동구청-소래대교-옥구공원-시화방조제-대부도-선재도-영흥도
- 장수IC-월곶IC-옥구공원-시화방조제-대부도-선재도-영흥도

까마득한 쓰레기 분해 시간

현재 바다에는 육지와 배에서 버려진 온갖 종류의 쓰레기들이 떠다니고 있다. 인천에서 멀리 떨어진 덕적도와 영흥도 부근 바다는 옛날 ‘물 반 고기 반’으로 불리는 황금어장이었다. 하지만 요즘 바다에서 그물을 걷어 올리는 어민들은 ‘물 반 쓰레기 반’이라고 한탄한다. 육지에서 밀려온 쓰레기가 물고기를 몰아내고 있는 것이다. 바다 쓰레기를 분해하는 데는 매우 긴 시간이 걸린다. 종이는 약 6주, 우유팩은 3개월, 페인트칠한 목재는 13년, 일회용 컵은 50년, 스티로폼 부이는 80년, 알루미늄 캔은 200년, 플라스틱 병은 450년, 낚싯줄은 600년 이상이 소요된다. 우리는 언제 분해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긴 시간이 흘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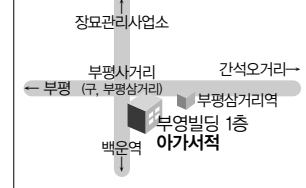
서가는 무겁게 주머니는 가볍게



어느 신문에서 대포로 유럽을 정복한 나폴레옹과 컴퓨터로 세계를 정복한 빌게이츠의 공통점을 찾아낸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다지만 그 중 하나는 지독한 독서광이었다는 점이다. 내 아이에게 더 많은 책을 사주고 싶지만 그 비용이라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중고 서적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옆집 누가 같은 책을 좀 더 싸게 구입했다는 얘길 들으면 귀가 솔깃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부모님들 위한 정보 한마당. 우리 인천에 요즘 '뜨다' 하는 전집류들을 싸게 판매하는 할인 서점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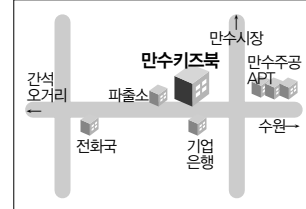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자유사진가)

아가서적 (513-8910)



이것은 모두 '부가서비스'에 지나지 않는다. 아가서적의 '메인 서비스'는 전집류 할인. 200여개 국내 유명 출판사의 900여 종의 전집 도서를 많게는 정가에서 80%까지 할인해서 판매한다. "방문판매를 주로 하는 전집류의 경우에는 출판사에서 상담사원을 거쳐 소비자 손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간 마진이 많이 생겨 가격이 높아질 수 밖에 없지만 아가서적은 중간단계를 생략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와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아가서적 김영수 대표의 설명이다. 명작동화 20권이 3만9천원, 전래동화 30권에 3만5천원 등이니 전집이 주는 가격의 '압박'에서 해방될 수 있어 기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한 번 더 즐거워진다.

만수키즈북 (461-8343)



키즈북은 놀이터 같은 분위기를 내는 곳이다. 1층은 이쁜만 대면 알만한 유명 중고도서 전집류를 취급하는 창고형 매장이다. 반면 2층 매장은 판매용 전시장과 아이들 놀이터까지 갖춘 작은 도서관이다. 키즈북 역시 출판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고 있어 헤밍웨이나 여원미디어, 바라미디어, 슈타이너의 전집류를 80~3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다. 만수키즈북의 장점은 친절함 상담에 있다. 매장을 찾으면 독서지도사 자격을 갖춘 이연옥 사장이 아이들 수준에 맞는 1대1 '맞춤상담'을 해준다. 이 사장은 "요즘 아이들은 독서에 대한 개인별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옆집 아이는 이런거 읽던

데...' 하면서 책을 고르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으므로 아이 수준에 맞는 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오키즈북(<http://www.ohkidsbook.com>)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어 한솔, 프리벨, 몬테소리 등 방문판매를 위주로 하는 전집들도 중고제품을 싼 가격에 만날 수 있다. 또한 헌책도 보상판매나 교환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가베수업이나 동화구연 등의 프로그램을 매장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미래서적 (816-7506)



성으로 승부한다. 가물가물한 책 제목도 이름만 대면 어느 출판사에서 언제 나온 책인지 즉각각각 대답이 돌아온다. 한국퍼킨스(빠아제), 차일드아카데미, 한국헤밍웨이, 한국슈바이처 등의 출판사를 직거래하고 있어 정가에서 50% 정도 할인된 가격에 전집을 구매할 수 있다. 보리의 달팽이과학동화 40권을 14만5천원에, 빠아제 명품 읽기 동화 16권이 4만3천원에 판매되기도 한다. 또한 미래서적에서 구입한 전집류는 50%의 가격으로 보상 교환할 수 있으니 서가 한 구석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용도폐기'된 전집류 등을 처치하기에 그만이다.

이밖에도

계양구 작전동에 자리잡은 제일 서적(543-6726)은 창고형 할인 서점이다. 이곳은 오프라인 보다 온라인(www.book080.co.kr) 위주의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인연을 맺은 고객들도 이곳에서 눈으로 책을 확인하고 살 수 있어 찾는 이들이 제법 많다. 제일서적 역시 전집류는 50%까지 싸게 판매한다. 전통의 중고서적 판매 서점도 돌아볼만 하다. 배다리에 있는 헌책방 골목에는 아직도 헌책방이 여럿 남아있다. 이곳에서는 아이의 특성에 맞게 또 엄마 입맛에 맞는 단행본을 고르는 재미가 특별하다. 헌책방의 대표적인 아벨서점(766-9523)에서는 프리벨의 디즈니명작 시리즈도 낱권으로 골라 읽을 수 있고 교원의 명작 애니메이션 등은 낱권은 물론 전집으로도 만날 수 있다.



헌책전문 아벨서점

이제 남들처럼 돈 좀 벌어보셔야죠~

글 • 김전욱 차장 (HSBC은행 인천지점 PB 454-7013)

작년 12월, 한 해를 마감하며 각 언론사에서는 그해 가장 유행했던 화제거리나 한 해 동안의 유행어 등을 쏟아내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그 중에서도 필자와 같은 서민(?)들에게 가장 눈길을 끈 것이 있었다면 아마도 적립식 펀드의 열풍이 아니었나 싶다.

펀드요? 관심은 있는데... 글썄

한 해 동안 가장 화두가 되었던 10대 유행어에 적립식펀드가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최근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부자되기' 즉 재테크에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재테크를 해야하는가? 불과 5,6년 전만해도 은행에 가면 10%에 가까운, 고금리의 상품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은행은 어떠한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금리를 감안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데다 각종 비과세니 세금우대니 하는 혜택들도 이제 남아 있는게 없으니 단순히 돈보관 잘 해주는 금고역할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펀드, ELS, ELD, 파생상품, VUL 등등 최근 각종 금융기관에서 쏟아내고 있는 실적배당형 투자상품이다. 예상수익률 00% 등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의 기대수익을 제시하는데다 판매직원의 현란한 말솜씨와 형형색색 컬러플한 도표와 수치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각종 안내장을 보면 당장이라도 있는 돈 없는 돈 긁어모아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런 투자자들의 마음을 붙드는 가장 큰 장애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원금손실에 대한 위험부담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원금손실 가능성)을 정말 훌륭하게 커버하면서도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각종 투자 상품들에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있으니 바로 작년 10대 유행어중 하나인 적립식펀드이다.

적립식펀드는 과연 안전한가요?

적립식펀드는 투자되는 시점이 1회가 아닌 여러 번으로 나뉘어 투자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투자시점마다 기준이 되는 주가도 달라지고 기준가격 또한 달라지게 된다. 주가는 하나님도 모른다는 우스개 소리처럼 펀드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가(물론 최근 주가가 아닌 금가격, 오일 가격 등 다른 기초자산을 가진 펀드상품도 많이 출시되고 있지만)의 흐름은 그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목돈을 투자하는 경우 절반은 운에 맡겨야 한다는 농담 반, 진담 반의 말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근거이다. 투자되는 시기마다의 기준시가가 달라진다는 의미는 목돈 투자시 한번에 기준가가 결정되어 향후 주가하락시 고스란히 입게 되는 손해에서 벗어날 수 있

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올랐을 땐 오른 가격으로, 내렸을 땐 내린 가격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위험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주가가 낮은 시기에 목돈을 투자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작용한다면야 더할나위 없겠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과연 지금이 투자 적기인가의 판단은 감히 누구도 할 수 없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과 같이 주가의 등락이 반복되는 조정장에서는 적립식펀드가 가장 유망한 투자수단이라고 말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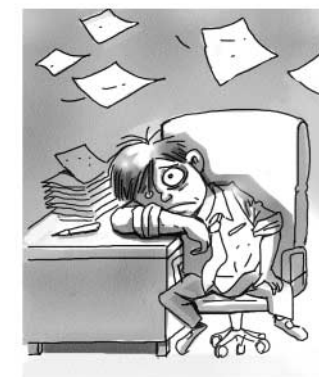
이제 나도 돈좀 벌해보자 ~

작년 한해 필자는 직접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고객들에게 적립식펀드를 포함한 실적 배당형 상품을 권유했고 상당수 고객이 투자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고객은 "그때 좀더 투자할 걸 그랬어"라고 웃으며 얘기하곤 한다. 물론 작년 한해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및 투자환경의 호조로 국내외 투자시장이 많은 성장을 했고 주가가 부양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를 반영하듯 최근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고객들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요?"라며 망설이곤 한다. 그러나 과거 우리증시가 900p에서 1,000p를 바라볼 때도, 또 1,000p를 넘어서 1,100p를 앞둔 시점에서도 '장이 너무 올랐다, 고점이다'라는 말은 항상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한가? 현재 1,400을 돌파하지 않았는가... 언제부터였는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최근까지 서점의 베스트셀러코너에서 꼭 빠지지 않는 종류의 서적중 하나가 재테크, 정확하게 '부자되기'와 관련된 책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은행에 착실하게 한푼 두푼 저축해서 이자받아서 부자되었다는 말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지금은 바야흐로 투자의 시대이다. 지금도 '원금손실 위험때문에...' '지금 너무 오른거 아닌가?' 하며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면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이제 남들처럼 돈좀 버셔야죠!"라고고...☀

과로 · 스트레스 극복해야 ‘藥’

글 • 이무일 (인천시한의사회 홍보이사, 화생당한의원장 551-7582)

평소보다 갈증이 심하게
나서 자다가도 몇 번씩
물을 마시러 일어나야 한
다거나 소변을 보는 횟수
가 잦아지면서 체중이 몇
주 사이에 갑자기 3kg
이상 감량이 된다면 하
면 당뇨병을 의심해 보아
야 한다. 이와 함께 피로
감이 엄습해오고 얼굴빛
이 검어지는 증상이 동반
된다면 더욱 그러하다.



얼마 전 한의원에 30대 초반의 당뇨 환자가 찾아왔다. 과중한 업무에다 3개월 가량 잦은 야근과 회식, 스트레스 등이 겹치면서 쉽게 얼굴이 붉어지고 피로감과 갈증이 심해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당뇨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후 절식과 운동요법을 병행해 조절해 봤지만 호전을 보지 못해 내원했다. 침치료와 함께 간과 신장을 정화하는 한약을 꾸준히 복용해 이전의 건강을 거의 되찾은 상태이지만 30대 초반이라는 나이에 성인병의 문턱으로 내몰린 이 시대의 비정함, 사회가 병을 만드는 현실에 쓸쓸함을 느끼게 하는 환자였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잘 먹지만 운동량은 적고,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그러나 요즘은 단순히 먹는 양이 많아지고 소모량이 적어져서 생기는 전통적인 당뇨병의 개념보다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당뇨의 발생이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당뇨의 경우 혈당을 자주 체크하는 분이 아니라면 바로 당뇨가 왔다고 스스로 진단해서 병원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평소보다 갈증이 심하게 나서 자다가도 몇 번씩 물을 마시러 일어나야 한다면 소변을 보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체중이 몇 주 사이에 갑자기 3kg 이상 감량이 된다면 하면 당뇨병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이와 함께 피로감이 엄습해오고 얼굴빛이 검어지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더욱 그러하다.

당뇨대란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당뇨병이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의학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는 오장육부 중 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한의학에서 간은 피로를 주관하고(肝者罷極之本), 피를 저장하고 조정하는 기능(肝藏血)과 각 장부간의 기혈(氣血)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기능(肝主疏泄), 근육을 주관하고(肝主筋), 눈의 기능을 조절(肝開竅於目)한다. 그런데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먼저 간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기혈의 순환이 막히게 된다. 막힌 기운으로 간에서 열이 발생하고 피는 탁하게 변하고 근육에서는 당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만성화될 경우 당뇨병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당뇨는 인슐린 분비가 적어서 생긴다기보다 인슐린은 충분히 분비되지만 기능이 떨어져서 혈관 내에 혈당이 높아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더 문제가 된다. 이는 간이 근육을 주관하고 있다는 한의학적인 이론과 일맥상통한다. 과로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대인은 오장육부 중 하나인 간의 부담을 줄여야 당뇨의 위험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한의학이 당뇨를 치료할 때 피를 맑게 하는 간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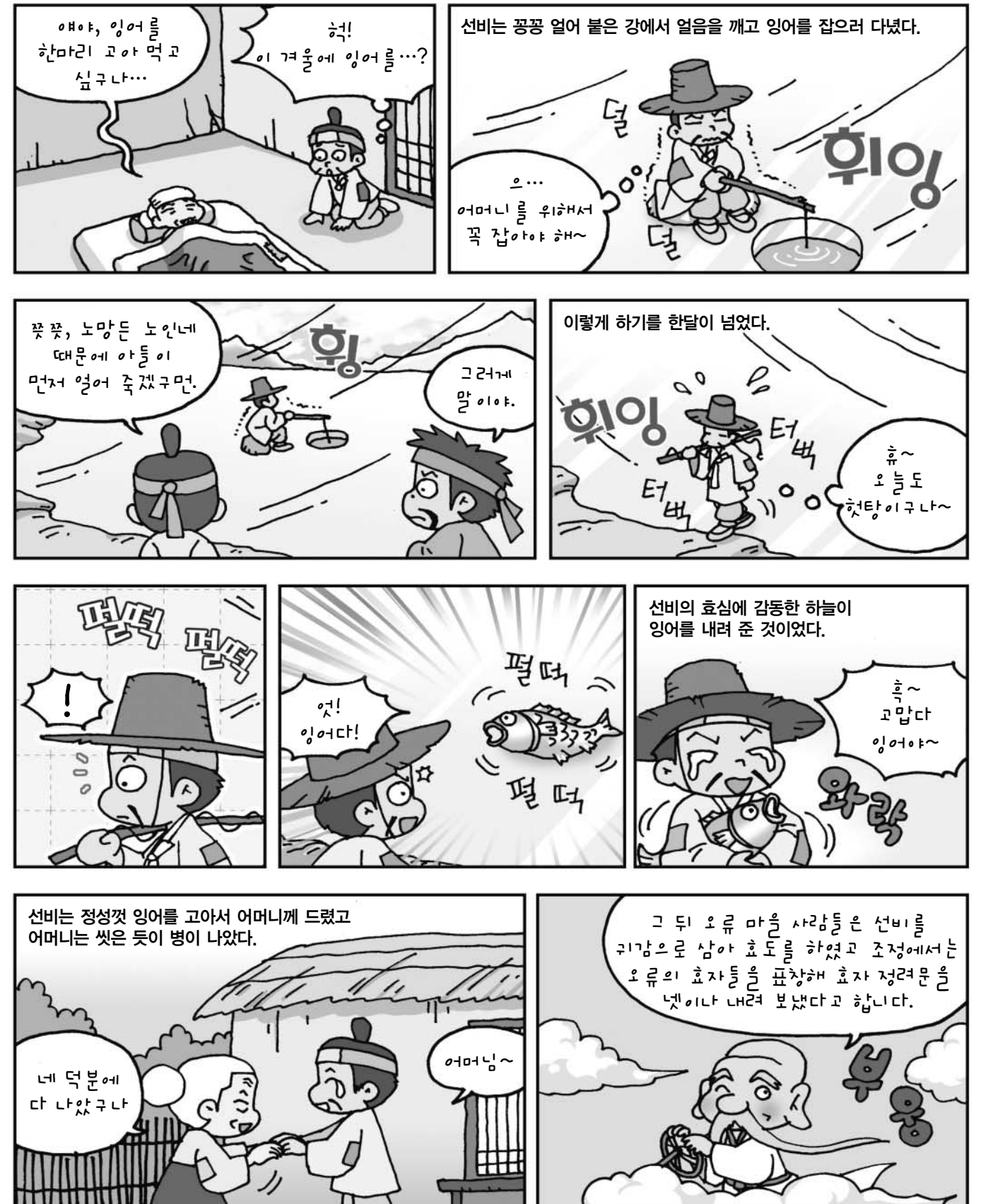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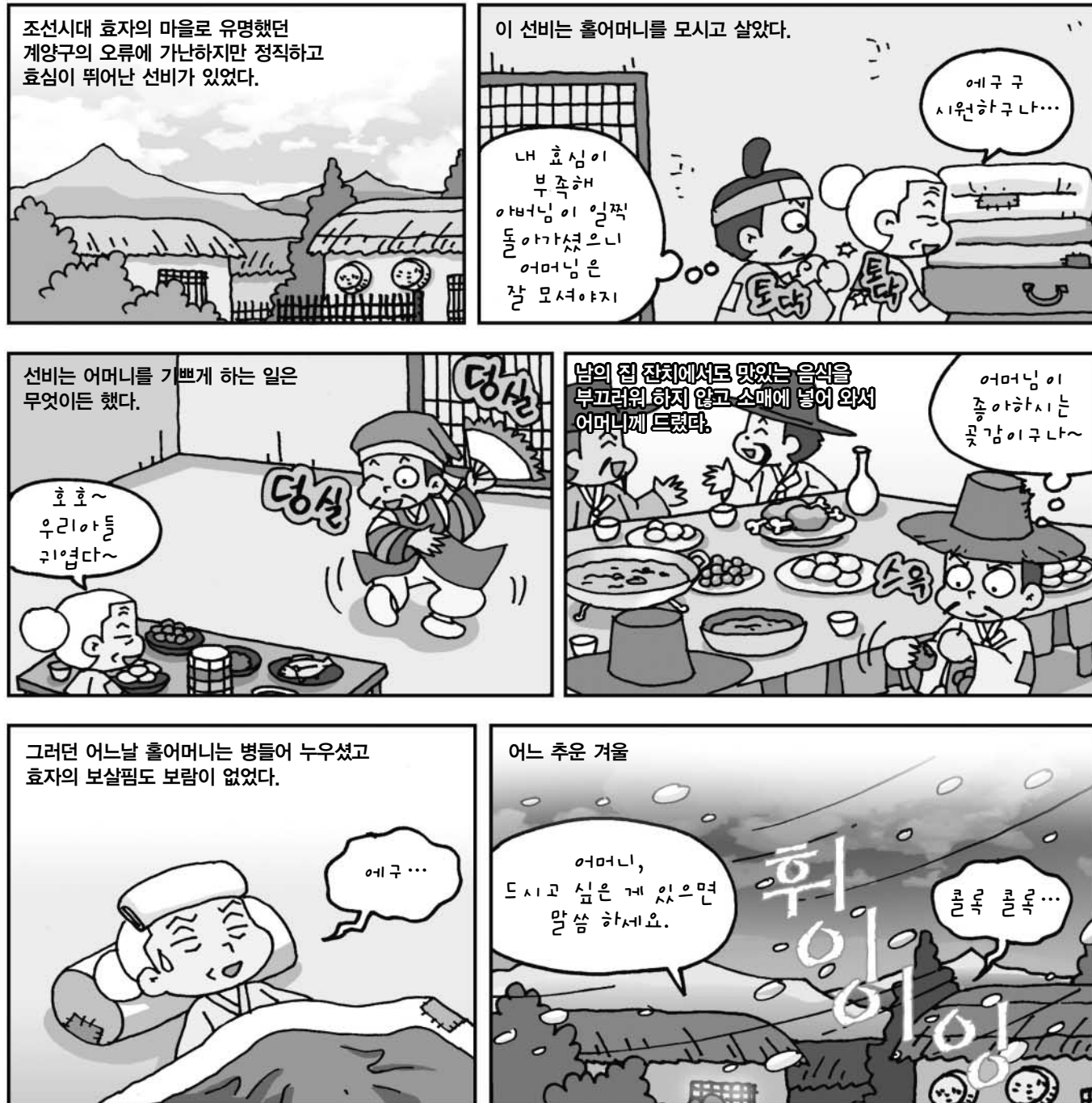
당뇨병 자체로 발생하는 갈증이나 빈뇨 증상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약재로는 천화분, 오미자, 복분자 등을 들 수 있는데 꾸준히 복용하면 당뇨로 생긴 제반증상 뿐 아니라 평소의 건강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체내에서 대사가 되지 않는 혈당의 대사율을 높이는 데는 그냥 쌀밥보다는 현미나 보리 등의 잡곡을 섞어서 먹는 식사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당분이 적은 메밀의 경우에는 혈당도 낮추고 체중관리에도 좋아서 당뇨가 있지만 비만인 분들에게 적합하다.

무엇보다 평소 마음을 편안히 갖고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하자. 피할 수 없다면 욕심을 버리고 마음의 여유를 찾자. 재미있게 일하자. 그러면 당뇨병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어느새 건강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



효자의 마을 '오류'

카툰니스트 • 이영호 (kaljebi@paran.com)



옛날 이야기 속의 효자 신현철 씨

글·김 류 (시인) | 사진·김보섭 (자유사진가)



솔직히, 신현철씨를 만나러 가면서, 속으로 울었다. 문득 잊고 살던, 세상에 없었던 사람처럼 까마득히 잊고 지내던 내 엄마 생각이 났기 때문이다. 엄마! 효자 신현철 씨가 한없이 부럽고 존경스럽고, 사뭇 올려 생각이 되어서, 고작 조약돌만한 자책으로 가슴을 치며, 엄마 생각을 한 것이다. 어린애같이, 쉼이 될 때까지도 '엄마' 라고 철없는 어리광 소리나 내던 자식의 가슴 안에서, 그래도 내 어머니는 "애야." 하시며 그 작은 몸짓으로, 그 옛날 음성으로 살아나시는 것이었다.

가신 지 벌써 십수 년. 슬펐다. 욕심이 되어, 결국 사는 일이 다 엉망이 되어 버린 이제, 새삼 살아가는 일이 바빠 엄마 생각 한번 못했다는 것이 차마 말이 되지 않아서 속으로, 속으로 울고 가는 길이었다. 내 어머니는 결코 큰 분이 아니셨다. 그저 조용히, 무식하게, 자식 일곱이나 안아 기를 그만한 품밖에는 가지신 게 없으셨던 엄마. 차창을 내다보며 봄이 오고 있는 저 앞산이 슬퍼, 저 진달래 피는 하늘 밑이 서러워 꺾꺾 눌러 울면서 가는 길이었다.



학교 일이라도 주로 영선(營繕) 관계 일이니 바깥에서 하는 일이 많을 터이고 겨울이면 추위에, 여름이면 햇빛에 시달려 자연히 검게 얼굴 그을릴 것은 당연하겠지. 물론 아이들 시험지, 통신문 같은 것 등사(옛날처럼 원지를 ‘가리방’에 대고 철판로 굽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고속 복사로 처리하는 게 다르다.)도 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에게 학교 안에서 달리 무슨 말수가 필요하랴. 우리 나

이 사십 세, 노총각 신현철 씨는 이렇게 인천 부평북초등학교 기능직으로 있는 것이다.

마주앉은 그의 그을린 얼굴에서 먼저 가려지지 않는 그의 우수(憂愁)를 읽는다. 윤곽이 다소 가냘프게 보이는 샌님같이 가름한 얼굴이어서 조금 더 침울한 듯 젖어 보인다고 할까. 거기다가 무테안경 속의 눈빛이 어딘가 모르게 고요하고 멀게 느껴진다. 아무래도 그는 우수형(憂愁型)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가 풍겨내는 고요한 슬픔, 그가 내비치는 잔잔한 그 우수의 물결.

흔히 말하듯 효자라면 어딘가 좀 두툼해 보이고, 덩덤하면서 바트지 않은 모습이 머리 속에 그리는 게 보통인데 그는 그런 익숙한 상상과는 조금 떨어져 있다. 영민해 보이면서 이지적이고 우수한 것이다. 더욱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은 미간 근처에 희미하게 떠도는 안개 같은 것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뒷모습에서 풍기는 적막한 느낌, 어깨에 내려앉

는 고요, 그런 분위기가 그를 착한 효자라기보다는 혼자 문을 닫아걸고 조용히 세상을 살아가는 한 샌님 시인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다.

이제 그 안개를, 우수를 어머니의 환후 때문이라고 말한다. 어머니는 1983년 여름,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다. 남양주시에 살 때였다. 행상에서 돌아오시던 어머니는 덤프트럭에 사고를 당하시고 두 시간 가까이 차 밑에 깔려 있었던 것이다. 경상남도 진주에 출가해 있는 누이 하나가 식구의 전부인 아들은 1년 넘게 어머니의 대소변을 혼자 받아냈다. 수술만 세 번, 이제 어눌하게나마 어머니는 말씀을 하시게 됐고, 열 걸음을 걷고, 쉬고 하는 보행도 조금은 되찾았다. 그러면서 그것이 오늘까지 23년이었다. 인천에 오게 된 것은 1990년 취직을 위해 노력하다가 인천 삼익악기 직업훈련원에 입소하면서부터였다.

그 후 1995년 우연히 앞집 분의 도움으로 학교에 기능직 요원으로 취직이 되었고, 이 부평북초등학교가 세 번째 학교. 학교를 옮길 때마다 셋집도 따라 옮겼다는 신 씨. 언제라도 급하면 어머니께 뛰어가기 위해서. ‘어머니, 내 둥근 보름달’이라고 말하는 신 씨. 그 보름달 같은 환한 어머니를 안고선 신 씨가 부럽다.

“세상에서 말로는 다들 효자라고 하면서 도무지 무관심하더군요. 흔한 일로 무슨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는 효자상(孝子賞) 하나를 천거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말이죠.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신현철 씨를 천거해야겠다고 생각해 오다가 하루는 교육청에서 삼성효행상(三星孝行賞) 후보자를 천거하라는 공문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당장 신 씨를 천거하도록 했지요. 그제 결국 신 씨의 효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이지요.”

고마운 분, 이동규(李東揆) 교장선생님은 정말 자신의 일처럼 그때의 사정을 기쁘게 설명한다. 교장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이, 말없이 눈만 내리깔고 앉아 있는 신 씨가 이처럼 큰 상을 받을 날이 과연 언제가 될까. 옥(玉)은 진흙 속에 묻혀 있어도 언젠가는 분명 사람 눈에 띄는 것이고, 그 옛날이야기처럼 효행은 아무리 낮게 수그러 해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알



아 언젠가는 반드시 그 사실이 백일(白日)처럼 환히 세상에 비쳐질 것이 틀림없지만….

“어머니는 다행히, 강골이셔서, 그리고 자존심이 있으신 분이어서 제가 편합니다. 어머니가 그런 분인데 제가 무슨 효행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제가 불효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전 사실 상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 씨의 말끝에는, 사십이 되도록 결혼을 못한 아들에 대해 어머니가 가지시는 미안한 마음, 이것이 오히려 어머니를 괴롭혀 드리는 불효라는 의미이다. 이런 사람! 이런 진짜 효자! 몇 마디 받아 적는 손이 멈추고 다시 눈앞이 흐려온다.

“하지만 결혼은 훗날이나 생각할 일이고요. 사귀는 차자는 있지만 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내 어린 시절 엄마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옛날 어느 곳에 참으로 효성이 지극한 효자 부부가 어린 외아들과 함께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다. 집안은 지극히 가난했어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이 행복한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다. 이 세상에 단 한 분뿐인 어머니께서 병석에 눕게 된 것이다. 어머니의 병환은 나날이 위중해져서 이제는 백약이 별무 소용인 지경에 이르렀다. 효자 아들은 침식을 전폐하고 어머니 병 구원을 했으나 다 허사였다.

행복했던 가정은 폐허처럼 삭막해지고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아들은 뒷산으로 올라가 산신령께 어머니의 병환만 낫게 해 준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노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그런 다음날이었다. 지나가던 돌팔이 하나가 사립문을 기웃하더니 그만 혀를 끌끌 차며 돌아서는 것이었다. 잠시 나

무를 하러 갔다가 돌아오던 아들은 돌팔이의 이런 행동을 보자 급히 불러 세우고는, 어찌해서 집안을 들여다보며 혀를 차느냐고 물었다. 돌팔이는 효자 아들에게 집안에 우환이 있은즉, 당신 어머니의 병이 위중한 것이요. 어렵기는 해도 그 병을 고치려면 한 가지 비방이 있으니, 다름 아닌 효자의 어린 외아들을 산 채로 가마솥에 삶아 어머니께 바치라는 것이었다. 청천벼락이었다.

그러나 옛날이야기였다. 아이는 다시 낳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오직 한 분뿐이었다. 부부는 작심을 하고는 서당에서 돌아오는 아이를 냉큼 잡아 필필 끓는 가마솥에 넣었다. 불경스러울까 눈물도 흘리지 못한 채 끓는 가마솥을 열었을 때는, 이 무슨 기적인가. 거기에는 아이 대신에 수백 년 묵은 산삼이 살아져 있었고, 놀란 효자 부부 앞에 서당에 갔던 아이가 들어오며 “아버지, 어머니 서당에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애타하는 아들의 효심을 굳이 시험해본 신령이 다소 심술궂기는 해도, 결국 극진한 효심이 산삼을 얻게 했고, 어머니의 병환을 낫게 했다는 이야기였다. 그렇다. 신 씨의 효심은 이제 교장선생님이 세상에 알려 주었으니 이번에는 틀림없이 신령께서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머잖아 어머니도 쾌차하실 것이다. 일흔 두 살의 어머니는 분명 건강한 몸으로 띄두꺼비 같은 손자를 안으실 것이다.

아침은 나올 때 챙겨 드리고, 다시 저녁은 돌아와서 짓고. 내 아픈 어머니와 단 둘이서 연애하듯 소꿉놀이하듯 그렇게 한 번 더 살아봤으면 싶다. 내, 가자미처럼 납작하고, 땀에 젖, 오직 비린내뿐이었던 어머니. 이 좋은 시절, 그리운 5월, 내 어머니여.

더러운 걸레가 더 좋아요

“엄마, 내일 준비물로 물걸레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더러운 걸레로 주실래요?” “왜? 깨끗한 걸레 가지고 가야지 무슨 일 있니?” 아이는 머뭇 머뭇 말하기를 꺼리는데 재차 재촉하자 마지못해 털어 놓는다.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은 약한 체질인데다 뭐든지 동작이 굼뜨서 학교 급식도 맨 꼴찌로 먹는다며 늘 불만이다.

아이학급에서는 일주일에 1번씩 점심을 먹고 나면 먹는 순서대로 자기가 맡은 구역을 물걸레로 닦는 모양인데 맨 나중에 밥을 겨우 먹고 급식실에 가서 식판 정리를 하고 오면 청소가 이미 다 되어 있단다. 학급 규칙은 가지고 온 걸레로 청소를 한 뒤 걸레가 얼마나 더러워졌나 검사를 받고 통과가 되어야만 집에 갈 수 있단다.

이미 여러 명의 걸레를 거쳐간 청소 구역은 아무리 닦아도 걸레가 더러워지지 않으니 몇 번이나 퇴짜를 맞기 일쑤고 생각다 못해 선생님 몰래 자기 실내화 바닥을 쓱쓱 닦고 나자 걸레가 비로소 더러워져서 통과하게 되었단다.



어디서 그런 맹랑한 생각이 나왔는지 우습기도 했지만 마냥 웃을 수는 없었다.

“그래도 선생님이 시키시는대로 더욱 열심히 해야지 다음엔 그러면 안돼!” 하면서도 씩씩한 생각을 펼쳐버릴 수가 없었다.

조혜미 (부평구 삼산동)

아버님의 청소결벽증

아버님이 봉직하신 회사는 사택까지 한 구내에 있었다. 회사 건물 바로 뒷편 배구장만한 공간 뒷 켠에 사원 사택이 몇 채 있어 오손도손 정답게 살았다.

그 회사의 책임자인 아버님은 대단한 늦잠꾸러기였다. 9시 조회가 시작되어도 일어나지 않으실 때가 종종 있어 도열한 직원들이 킁킁거리고 웃으며, 급히 옷을 입고 달려 나오시는 아버님을 맞이하곤 하였다. 그 때 난감해 하시던 어머니의 표정이 지금도 생각난다.

이렇게 늦잠꾸러기 아버님이 일요일이면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모처

럼 휴일을 즐기려는 우리들을 닥달하시며 단잠을 깨우셨다. (지금 생각해도 무슨 조화속인지 이해가 안간다.) 졸린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면 자고 있던 침구를 걷어내고, 이불장에 반듯하게 정리하고는, 총채로 먼지를 털고 대청소를 시작하신다. 보통집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할까말까하는 대청소를 강행하신다. 물걸레로 방, 마루, 변소까지 싹싹 쓸고 닦아 낸다.

일본식집이라 유리창이 제법 많아 유리창까지 겨울날에 청소하기란 정말 힘든 일이었다. 아버님의 이상한 청소결벽증이 일요일이면 발동이 걸리니 즐거워야 할 일요일이 이런 고통의 날이라, 나는 지금 청소하기를 별로 즐겨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언제나 일요일 아침이면 아버님의 청소의 미덕, 예찬론을 되새기면서 아버님을 그리워한다.

송문호 (서울 동작구 사당2동)

뜻밖의 형제

꽃망울도 놀라게 했던 꽃샘추위도 물러가고 여러 가지 봄꽃들이 앞다투 피기 시작하는 4월의 첫주. 낚시를 가겠다면 남편까지 붙잡아 놓고 우리 가족은 봄맞이 대청소를 하기로 했다. 아이들까지 두 팔을 걷어가며 고사리같은 손으로 열심히 청소를 도왔다. 낚시에 가지 못한 남편도 한참을 투덜거리다가 체념한 듯 이젠 열심히 청소에 임한다. 가구를 이리저리로 옮겨가며 먼지를 쓸어대던 남편의 한마디. “웬만하면 청소 좀 깨끗이 하며 살지 그래?” 평상시 같았으면 대충 대충 하라던 남편이다. 낚시를 가지 못한 여파가 이렇게 크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참 청소를 하는데 큰딸아이가 “엄마 이게 뭐예요?” 하는 것이다. 그 말에 남편과 동시에 딸아이에게로 다가갔다. 딸아이는 흰 봉투 한개를 들고 있었다. 나는 얼른 가로채 열어보았다. 아니, 이게 웬 형제. 봉투를 열어보니 뽀뽀한 만원권 지폐가 20장이나 있었다.

순간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다. 사실 그 돈은 남편의 비자금이었던 것이다. 남편이 액자 뒤에다 숨겨 놓았는데 자기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번 대청소로 인해 발견된 것이었다. 남편은 아까워 발을 동동 굴렀지만 우리 가족은 대청소를 끝내고 즐거운 외식 시간을 가졌다.

남편 여러분~ 비자금 숨겨놓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황금숙 (서구 가정3동)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에 자수한 경우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는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는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중독 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자수기간 경과 후 검거된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속 엄단할 방침이오니 주변에서 마약류 투약자가 자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는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또한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가족, 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오니 마약류 투약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4월 1일 ~ 6월 30일 (3개월간)

상담 및 전화 _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 (860-4744~9, 국번없이 127)

2006년 5월 31일(수요일)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만19세 이상(1987. 6. 1까지 출생)이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5월 31일(수요일)은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 마음속 한표 보다는 참여 속에 한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우리 인천지역의 미래가 바로 당신의 소중한 한 표에 달려있습니다.

※투표시간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인 6표제〉

2006년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한 사람이 여섯 종류의 투표용지로 투표하게 됩니다.

• 1차투표 : 1차 투표용지 3장(지역구 구·군의원선거, 비례대표 구·군의원선거, 구청장·군수선거)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는다.

• 2차투표 : 2차 투표용지 3장(비례대표인천광역시의원선거, 인천광역시의원선거, 인천광역시시장선거)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는다.

〈부재자신고 안내〉

• 2006년 5월 31일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재자신고를 하고,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 신고기간 : 5월 12일(금) ~ 16일(화)까지
(구·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우편요금 무료)

• 부재자투표일 : 5월 25일(목) ~ 26일(금) 2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자고지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사업장의 편의제공을 위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를 통해 건강보험료 전자고지 서비스를 실시해 왔으나 2005년 12월부터 이용자들에게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단 자체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해 전자고지(E-mail) 및 다양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공단의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료 납부가 편리합니다.**

– 공단에서 발송된 전자고지(E-mail) 상단에 있는 ‘전자납부’를 클릭하시면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로 즉시 연결되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보험료납부가 가능합니다.

• **전자고지를 신청하시면 이런 점이 편리합니다.**

–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내역서 및 사업장 보험료 산출명세서 제공
– 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 법률개정사항, 보험료 조정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여행, 출장, 연수교육 등으로 잠시 거주지를 떠나 있어도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보험료를 확인하여 인터넷 납부가 가능합니다.
– 보험료고지서의 미 도달, 훼손, 분실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전자고지(E-mail)서비스**」신청 절차

–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회원 가입 후,
– 홈페이지 → 바로가기 → 전자고지(E-mail)에 접속하여 신청
– 공·교 사업장과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가입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 _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 (1577-1000)

2006년 5월 무료검진 안내

지방공사 인천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료소외계층 및 시민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간 및 장소** : 5월 8일(월) ~ 12일(금)

지방공사 인천의료원 1층 (내과 7)

• **진료시간** : 오전 8시 30분 ~ 오후 4시

• **검진명** : 빈혈검사

• **검진인원** : 50 명

• **기타** : 검진시 신분증은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_ 지방공사 인천의료원 총무인사팀

(580~6478, 580~6651~5)

제18회 청소년 그림·글짓기대회 열립니다

화수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오는 5월 13일(토) 가정의 달을 맞아 청소년들의 소질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 18회 청소년 그림 글짓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5월 13일(토) 오전 11시 ~ 오후 4시
(우천시 20일(토) 오전 11시 ~ 오후 4시)

• **장소** : 송현근린공원

• **대상** : 유아 및 초·중·고등학생

- 내용 : 그림 그리기, 글쓰기(운문, 산문)
- 주변마당 : 11:30 인형극장 '달님이 된 엄마공룡', 페이스페인팅, 핸드폰 고리 만들기, 영화포스터 기념사진, 신나는 과학놀이, 풍선 나누어주기 등
- 시상훈격 :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 시상내역 : 대상(2명), 최우수(6명), 우수상(8명), 입선(80명), 특선(동부경찰서장상 5명)
- 수상자발표 : 5월 23일 동구청홈페이지 공지

문의 _ 화수청소년문화의집 (762-7942)

구성에 선생님과 함께하는 '우리아이에게 올바른 성(性) 교육하기'

아이들의 성문제! 어떻게 대처하고 교육시켜야 할 지 부모님도 어려우셨지요? 인천시상담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학부모를 위하여 구성에 선생님과 함께 자녀의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부모교육 특강' 강연회를 실시합니다.

- 일시 : 5월 23일(화) 오후 1시 30분
- 대상 : 학부모, 교사, 청소년지도자 300명
- 장소 : 인천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시청각실
- 내용 : 새시대의 아우성-올바른 자녀 성교육
- 강사 : 구성애(푸른 아우성 대표)
- 참가비 : 무료

문의 및 신청 _ 인천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교육지원팀
(429-5562~3)

홍예문 가는 길 토요일외거리전

봄꽃 축제가 절정에 이르러, 거리에는 온통 사람의 물결이 일렁이는 싱그러운 계절을 맞아 미추홀문화회관에서는 '제6회 홍예문 가는 길! 토요일외거리전'을 개최합니다.

- 행사일시 : 5월 13일(토) ~ 6월 3일(토)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 행사장소 : 인천예총 미추홀문화회관(동인천 구/인천여고 은행나무길)
- 개막식 : 5월 13일(토) 오후 2시
- 전시회
 - 일시 : 5월 13일 ~ 6월 3일 매주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 장소 : 인천예총 미추홀문화회관 (구 / 인천여고 은행나무길)
 - 전시내용
 - ▷ 생활양재, 데코파주 등 공예, 미술, 사진, 천연비누
 - ▷ 시연회 & 공연 내용 (무료)
 - 5월 13일 : 길놀이&사물놀이, 구수한 뽕튀기 축제, 종이공작(부모님과 함께 수건걸이 만들기),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미추홀요들단 공연, 인천 향토 춤사위, 추억의 달고나 축제, 악세사리

- 만들기, 전통 부채에 서예 그려 주기, 프레스 플라워 : 핸드폰 고리 만들기, 플룻 & 오카리나 연주회
- 5월 20일 : 달콤한 솜사탕 축제, A+과학나라 : 꾸불꾸불 색깔 뱀, 오색 손 팽이, 전기미로 등 과학 실험, 입체 POP 손글씨 : 장식 입체 손글씨 써주기, 미추홀문화회관 합창단 공연, 추억의 달고나 축제, 가베 시연회, 립글로스 & 아로마 비누 만들기
- 5월 27일 : 달콤한 솜사탕 축제, 명품인형 코튼돌, 해리포터 마술, 현대무용& 재즈댄스, 비즈, 패션페인팅
- 6월 3일 : 고소한 팝콘 축제, 에그아트, 페이스페인팅, 미추홀문화회관 요들단 공연, 추억의 달고나 축제, 고무찰흙

문의 _ 미추홀문화회관 (765-0220, 0250 www.mchart.co.kr)

2006 우리지역바로알기답사

해반문화사랑회에서는 2006년 우리지역바로알기답사를 갖습니다. 올해는 대주제를 '전국 근대문화유산을 찾아서'로 정하고 인천 지역의 근대문화유산과 다른 도시들의 근대문화유산을 비교해 봄으로써 인천의 문화유산들의 특징과 그 중요성을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28회 충남, 전북지역의 근대문화유산
 - 일시 : 5월 13일 ~ 14일 (13일 오전 10시 문학경기장 출발)
 - 코스 : 전주-신흥학교, 옛 예수병원, 선교사 묘역, 전통성당, 전북금융조합연합회, 중앙동 등 / 부여-백제역사문화관 등
 - 회비 : 2만원 (입장료 포함)

한편 29회 서울 근대문화유산 (9월 9일), 30회 대구 근대문화유산 (10월28일~29일) 행사도 진행됩니다.

문의 _ 해반문화사랑회 (761-0555, www.haeban.org)

2006년 세계장애인 역도선수권 대회가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부산에서 '2006년 세계장애인역도선수권 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장애인을 위한 축전인 이번 대회가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축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냅니다.

- 대회명칭 : 2006 세계장애인역도선수권대회
- 기간 : 5월 1일(월) ~ 12일(금) (13일간)
- 장소 : 부산광역시 기장체육관 (051-720-1211~6)
- 참가규모 : 80개국 800여명(선수·임원, 보도진 등)
- 경기종목 : 벤치프레스 40체급(주니어/시니어, 남/녀 각 10명)
- 주최 : 국제장애인역도연맹
- 주관 : 2006 세계장애인역도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051-867-2348))



미추홀문화회관 여름학기 수강생 모집

미추홀문화회관에서는 수준 높은 강좌운영, 충실한 교육과 더불어 순수 예술의 저변화를 위해 미술, 무용, 악기, 국악, 공예 등 다양한 전통 및 순수 예술 프로그램으로 여름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문화적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순수예술분야 '무료 특별 기획 강좌'도 개설 하였습니다.

- 접수기간 : 5월 8일(월) ~ 6월 11일(일)
- 강좌기간 : 6월 5일(월) ~ 8월 26일(토)
- 장소 : 인천예총 미추홀문화회관 (구/인천여고)
- 대상 :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주부, 일반인, 직장인
- 문화시민을 위한 무료 강좌
 - 어린이 : 어린이 풍물(인천풍물연구보존회장 노종선), 어린이 서예교실 - 한문/한글(서예가 이병남), 어린이 수학(전 인천교육청 장학관 김용연), 어린이 한자(한자전문강사 최종영), 어린이 중국어(중국어전문강사 최 연)
 - 성인 : 서예(인천미술협회 최종영), 유학기초반(인천광역시초대 작가 이영학), 성악 초급(성악가 조외숙), 인천향토 춤 사위(인천무용협회 손삼화), 수필창작과 문학의 이해(전 인천대초빙교수&문학박사 김준기), 자녀 학습 지도법 및 대화법(전 인천대초빙교수&문학박사 김준기), 사진 촬영(인천사진협회 조만년), 일어회화(일어전문강사 신혜숙),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회화(금빛평생교육자원봉사 신혜숙), 중국어회화(중국어전문강사 최연, 실버건강댄스&체조(건강댄스전문강사 김용숙), 생활원예(원예전문가 유근옥)
- 여름 방학 특강 및 체험 교실
 - 아이스 스케이팅 체험 교실, 수영캠프 교실, 뮤지컬 관람 & 감상문 쓰기, 키즈사이언스 가족 체험 기행 - 자연과 함께 만드는 즐거운 목공 체험, 도자기 체험 & 물설매 타기
- 정규강좌 : 공예, 창업반, 자격증반, 미술, 무용, 음악, 국악, 어학, 교양, 건강, 스포츠, 미용, 창의력 계발, 학습 계발

문의 _ 미추홀문화회관 (765-0220, 0250, www.mchart.co.kr)

한국산업인력공단 평생학습지원 사업 실시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지방사무소가 지난 3월 1일자로 인천지역본부(본부장 이원박)로 승격되면서 기존의 국가기술자격검정, 외국인 고용지원, 기능장려사업 이외에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과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평생능력개발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행하는 주요 신규사업은 △중소기업 학습조직화를 위한 지원 △중소기업근로자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 및 컨설팅 지원 △기업내 인적자원 개발 진단평가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 사업 등입니다.

지역의 중소기업에서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정부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면 인력양성을 위한 계회수립과 자문에서부터 학습과정과 평가단계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_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지역본부 평생능력개발지원팀
(818-2181~3)

제9회 인천관광기념품공모전 개최공고

1. 공모부문 : 3개 부문
(민·공예품, 공산품, 가공식품(전통민속주, 전통한과류 등))
2. 공모분야 및 자격 : 2개 분야
 - 창작아이디어분야 : 시제품
 - 창의적 아이디어 개발상품으로서의 시제품
 - 실험적 아이디어 상품으로서 공예 등 관련학과 학생 및 개인 응모기회 제공
 - 일반상품분야 : 완제품
 - 우리 인천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대표하고, 국내 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계속 생산 가능한 우수한 관광상품
 - 제품, 포장, 안내문 등이 하나의 세트화로 이루어진 제품 ※제품, 포장, 안내문 등 세트화되지 않은 기념품은 접수치 않음.
 - ※역사문화 관광기념품 개발 확대를 위해 2006년 공모전에서도 역사문화를 테마로 한 관광기념품 출품 장려 (2개분야 금 은 동 각 1점(총 6점)은 역사문화를 테마로 한 관광기념품 중에서 선정)
⇒ 문화유적, 역사적 인물, 역사가 있는 관광지를 테마로 한 기념품으로서 관광객들에게 한국 및 인천의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그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제품

3. 응모자격

- 사업장 또는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자

4. 공모전 주요일정

- 공모접수
 - 기간 : 5월 10일(수)~12일(금)
 - 출품제한 : 1인(업체)당 분야별 5개 이내
 - 접수방법 : 해당 군·구의 관광 담당부서 방문 접수
 - 제출서류 등
 - ▷창작아이디어분야
 - 1) 창작아이디어분야 참가신청서 1부
 - 2) 상품화계획 1부
 - 3) 시제품 및 제품사진(4×6인치) 1매
 - 4)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에 한함) 1부
 - ▷일반상품분야
 - 1) 일반상품분야 참가신청서 1부
 - 2) 일반상품분야 제품설명 및 상품화실적 1부
 - 3) 완제품 및 제품사진(4×6인치) 1매
 - 4)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입상작 발표 : 6월 2일(금) 오전 10시 시 홈페이지 게재

5. 시상

창작아이디어분야				일반상품분야			
구분	훈격	작품수	상 금	구분	훈격	작품수	상 금
대상		1	4백만 원	대상		1	4백만 원
금상	인천	2	각 2백5십만 원	금상	인천	2	각 2백5십만 원
은상	관광	2	각 1백5십만 원	은상	관광	2	각 1백5십만 원
동상	협회	2	각 1백만 원	동상	협회	2	각 1백만 원
장려상	장	3	각 5십만 원	장려상	장	3	각 5십만 원
입선		10	각 20만 원	입선		10	각 20만 원

6. 출품제품 반환 및 귀속

- 낙선제품 반환 : 예선 심사 종료 후 해당 군 구로 일괄 반환
- 장려상 이상 입상제품은 본선 출품 및 시칭을 전시 등을 위해 1년간 인천시에 귀속

문의 _ 시 관광진흥과(440-4055), 인천관광협회(432-4590)

오존주의보 발령시 시민 행동요령

우리시에서는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오존경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시행기간** : 5월 1일 ~ 9월 30일(5개월)

• **시행지역** : 전역 (웅진·강화 제외)

－ 중남부지역 : 중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 서부지역 : 동구, 서구

－ 동부지역 : 부평구, 계양구

• **시행방법** : 오존(O₃) 오염도에 따라 지역별로 구분 발령

※환경기준 : 0.1ppm이하/1시간

발령기준	주의보	경 보	중대경보
농 도	0.12ppm이상	0.3ppm이상	0.5ppm이상

• **경보발령·해제권자** : 인천광역시장

※오존오염추이 분석 및 경보발령·해제요청 :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존주의보 발령시 시민 행동요령**〉

• **실외 운동경기를 자제합니다**

－ 오존경보제 시행기간인 5월부터 9월까지는 오존의 농도가 높으므로 실외에서의 과격한 운동경기를 자제하여야 합니다.

－ 실외운동은 오전 12시 이전에 하고 오후에는 자제하여야 합니다.

• **노약자 및 어린이는 실외활동을 자제합니다**

－ 호흡기 질환자, 심장질환자, 노약자, 어린이는 실외활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 **자동차의 사용을 자제합니다**

－ 정오(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오존이 생성되기 쉬운 시간대이므로 오존생성의 자감을 위하여 전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운행 중인 차량은 라디오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고 오존경보(주의보)발령 시에는 발령지역을 우회하여 통과하여야 합시다.

• **오존경보(주의보)를 신속히 전파합니다**

－ 행정기관은 오존경보(주의보)발령 10분내에 모든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발령사항을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 방송기관은 오존경보(주의보)상황 접수 시 즉시 방송하여 시민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문의 _ 시 환경보전과 (440-3526)

제24회 상공대상 후보 접수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노사협조, 환경경영, 지역사회 봉사 등을 통해 기업과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 사회의 복리 증진에 지대한 공적이 있고 타의 모범이 되는 유공 기업인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기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도모하고자 제24회 상공대상 후보를 접수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추천을 바랍니다.

• **시상부문 및 인원** : 5개 부문 5인 이내

－ 기술개발부문, 생산성향상부문, 노사협조부문, 환경경영부문, 사

회복리부문 각 1인

• **자격요건**

－ 인천광역시 관내에 5년 이상(2006년 7월 1일 기준) 소재하고 있는 상공회의소 회원 업체로서 시상 부문별 공적이 현저한 기업체 또는 소속 기업인(사원 포함)

－ 3년 이내(2006년 7월 1일 기준)에 관련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자는 제외

• **추천권자**

－ 기업체 대표

－ 인천상공회의소 의원 5인 이상

－ 상공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장

－ 주민(세대단위) 또는 기업체 사원 20인 이상

• **접수기간** : 4월 20일(목) ~ 5월 12일(금)

• **추천서류** : 추천서, 공적조서, 공적조서 요약본, 이력서, 공적증빙서류, 명함판 사진 3매(사진 이외의 서류는 각 2부 제출)

• **접수처** : 인천상공회의소 기업지원팀 (810-2852, 조세열 과장)

• **기타**

－ 수상자는 소정의 서류심사와 심의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임

－ 시상내역은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의 대상트로피 및 부상(100만원 이상의 금품)

－ 시상식은 제121회 인천상공회의소 창립기념식(7월 4일(화) 예정)

과 같이 개최될 예정임

문의 _ 인천상공회의소 (810-2852, www.incham.net)

2006 발명특허 Festival 열립니다



발명의 달을 맞아 21세기 첨단시대에 대비한 발명 과학기술의 중요성 및 발명문화의 효율적인 확산 및 발명 마인드 붐을 조성하기 위해 발명체험 축제의 장이 특허청과 한국발명회 주최로 마련됩니다.

• **일시** : 5월 21일(일)

10:00 ~ 17:00

• **장소** : 인천대공원 야외음악당

• **참가대상** : 경인지역의 어린이·청소년·학생 및 가족 3,000명

• **행사내용** : 발명실험체험 프로그램(20종), 창작놀이체험 프로그램(5종, 유료), 발명경진대회 프로그램(3종), 이벤트마당 프로그램(5종), 부대행사(특허발명품 전시장, 로봇페스티벌 시현)

• **참가비** : 무료(참가기념품, 간식제공 및 인천대공원 입장료 면제)

• **신청** : 인터넷으로 선착순 마감(Festival.incham.net)

• **접수기간** : 4월 28일(금) ~ 5월 17일(수) 18:00까지

문의 _ 인천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

(810-2838/9, www.incham.net)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용하세요

• **센터에서 하는 일**

①**상담지원** : 심리·정서적 지원 / 전문상담지원 / 특수치료지원

②**피해지원**

▷의료지원 : 협력병원 통한 응급조치 및 의료적 치료지원(정신적, 신체적)

▷생계지원 : 생계형 재정지원, 자활 재정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범죄현장 정리, 학업지원, 생필품 지원 등 기타

③**화해조정**

▷화해조정 : 범죄발생 후 일차적 보호지원, 민원적 피해요구 조정, 집단피해조정, 사건에 대한 화해중재

▷법률지원 :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한 제도 안내, 법률 자료·정보 제공, 사법보좌 : 법정, 수사기관 출석 시 사법보좌 동행

양성평등 축진을 위한 제3회 인천광역시 여성상 및 제7회 평등부부상 시상

인천시에서는 양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남녀평등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

‘제3회 인천광역시여성상’ 및 ‘제7회 평등부부상’을 선발하여 시상합니다.

1. 시상개요

• 일시 : 7월 5일(수) 오후 2시(제11회 여성주간 행사시)

•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시상인원

－ 제3회 인천광역시여성상 : 3명(3개 부문)

※남녀평등 부문, 권익증진 부문, 지위향상 부문 각 1명

－ 제7회 평등부부상 : 5쌍(부부)

• 시상내용 : 상패수여

2. 자격기준

• 제3회 인천광역시여성상

－ 시상예정일(7월 5일) 현재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시민

－ 여성의 권익증진과 지위향상 등 양성평등 축진을 위하여 헌신한 시민

• 제7회 평등부부상

－ 시상예정일(7월 5일) 현재 우리 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부부

－ 결혼생활 10년 이상인 부부

－ 가정 내 평등 실현과 생활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평등가정 부부

3. 접수 및 추천

• 접수기간 : 4월 20일 ~ 5월 19일 (30일간)

• 접수처 : 시 여성정책과 및 군·구 여성정책 관련부서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추천권자 : 군수·구청장,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의 장(주사무소 할 기관에 제출), 일반시민 추천(평등부부 : 10명 이상의 연명으로 추천)

• 추천시 구비서류

－ 제3회 인천광역시여성상 : 수상후보자 추천서, 공적조서, 현지확인서, 기타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 **센터가 필요한 이유**

－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인권과 권익 옹호

－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및 그 가족과 유족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회복

－ 위기상황 대처 및 2, 3차 피해 예방

－ 손상된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켜서 실효성 있는 원상회복 지원

• **지원대상** : 강도, 살인, 폭행, 교통사고,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및 그 가족과 유족. (가장사망, 빈곤가정, 생계불가 등)

• **상담일정**

－ 매주 월~금 10:00~17:00

(12:00~13:00 점심시간·공휴일 제외)

－ 전화, 면접(내방, 방문), 온라인 상담(24시간)

－ 상담은 무료이며 비밀보장의 원칙을 지킵니다.

문의 _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868-4999, www.icvc.or.kr)

－ 제7회 평등부부상 : 평등부부상 수상후보자 추천서(기관·단체 추천용), 평등부부상 수상후보자 추천서(일반시민 추천용), 수상후보자 신상명세서,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현지확인서, 기타 증빙자료 첨부

4. 선발방법

• 심사위원 구성 : 5인 이내

• 심사방법 : 서면심사(필요시 현지확인)

5. 선발기준

• 제3회 인천광역시여성상

－ 남녀평등 부문 : 남녀 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생활속의 남녀평등 문화 확산 및 정착에 노력한 시민

－ 권익증진 부문 : 여성폭력의 근절과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여성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기여한 시민

－ 지위향상 부문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시민

• 제7회 평등부부상

－ 가정에서 부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서로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양성평등한 부부

－ 가사와 자녀양육 등 일상생활에 공동 참여하는 부부

－ 부동산·동산의 소유와 증식등 재산관리에 양성평등한 부부

－ 배우자의 고민에 대한 관심과, 취미·여가활용 등을 함께 하는 부부

－ 성격·학력·연령차이 등을 상호 보완하고 존중해 주는 부부

－ 부모봉양, 가정편람, 생활안정 등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한 노력과 지역의 봉사활동 참여 등 주위로부터 칭송을 받는 부부

※구비서류 비치 : 인천광역시 여성홈페이지(http://women.incheon.go.kr)관

련양식 다운로드

문의 _ 시 여성정책과 (440-2692)



예배당 옆 대웅전

담장도 없이 절묘하게 두 성전(聖殿)이 땅을 나뉘어졌습니다.

교회 창문에서 내려다보면 바로 절 마당입니다.

대웅전 처마 끝에 걸린 십자가를 보며

이젠 사문자(死文字)가 된 '사랑과 자비', '용서와 화해' 같은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머지않아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4월 초파일입니다.

그날 교회에서 사찰 쪽을 향해 이런 축복송을 불러주면 어떨까요.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 순간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극락이 되지 않을까요.

(중구 도원동에서)

글 · 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



인천의 새로운 FM방송 탄생

최고의 방송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느낌 90.7 우리함께 SUNNY-FM



☞ **굿모닝 인천 (월요일~금요일 매일 아침 7시~9시)**
인천의 정치, 경제, 문화와 다양한 생활정보

☞ **글로벌 인천 (금요일 아침 8시 30분~9시)**
인천지역현안에 대한 명사들의 통쾌한 토론

☞ **SK 와이번스 프로야구 중계**
인천시민들을 위해 우리지역 연고팀인
SK와이번스 주말 전 경기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중계

☞ **김광한 팝스다이얼 (매일 오후2시~4시)**
음악 DJ역사의 산증인과 함께

☞ **장용과 세리의 신나는 라디오 인천 (매일 오후6시~8시)**
지루한 퇴근길을 웃음과 음악으로 채워드립니다

☞ **인천포럼중계 (매주 토요일 아침7시~8시30분)**
다양한 소재로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유명 강연자들의 특강 중계

☞ **박근혜의 뮤직박스 (매일 오전11시~오후1시)**
톡톡 튀는 그녀와의 유쾌 상쾌 데이트!

☞ **DJ채리의 SUNNY MUSIC SHOW (매일 오후1시~2시)**
강력한 파워 리믹스가
오후의 나른함을 한방에 날려드립니다

☞ **오세준의 P.S I LOVE U (매일 자정~새벽2시)**
모두가 잠든 시간... 유쾌한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http : //www.sunnyfm.co.kr](http://www.sunnyfm.co.kr)

tel : 032-830-1000